metro®

메트로 2015년 7월 1일 수요일 제3248호 www.metroseoul.co.kr

News p/2



日, 3억 엔에 위안부 해결?

News p/5



삼성병원, 의료진 또 감염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 /연합뉴스

아직 끝난 게 아니다

신격호, 한-일 롯데 핵심고리 'L투자' 여전히 장악
둘째 신동빈, 회장직 맡고 있지만 사실상 '빈껍데기'
첫째 신동주, L투자회사 통해 언제든지 복귀 가능

롯데그룹의 지주회사격인 호텔롯데를 지배하며 '한국 롯데' 전체의 핵심 주주 역할을 하는 일본 국적 기업 'L투자회사'의 실체가 메트로신문 취재결과 윤곽을 드러냈다. L투자회사는 국내 롯데 계열사들로부터 매년 상당한 규모의 배당금을 챙겨가고 있지만, 일본 국적인데다 비상장 회사여서 소유 및 지배구조가 국내에는 거의 알려지지 않은 상태다.

L투자회사의 현황에 비추어 '신동빈의 롯데'는 아직도 완성되지 않은 미래형인 것으로 분석됐다. 신격호 롯데 총괄회장은 여전히 L투자회사의 실질적 지휘권자다. 아직 후계자를 뚜렷하게 지목하지 않은 상태다.

롯데 계열사 경영에서 완전히 손을 뗀 것으로 알려진 신동주 전 롯데홀딩스(일본 회사) 부회장은 언제든지 컴백할 가능성이다.

호텔롯데는 롯데상사·롯데면세점·롯데캐피탈 등 모든 국내 롯데 계열사의 대주주로 '일본 롯데'가 '한국 롯데'를 지배하는 중간고리 역할을 하는 회사다. 호텔롯데의 실질적인 최대주주는 12개로 나눠져 총 72.65%의 지분을 가진 L투자회사다. 호텔롯데의 나머지 지분의 대부분은 역시 일본국적 회사인 롯데홀딩스(19.07%)와 광윤사(5.45%)가 보유하고 있다.

30일 일본 농림수산성에서 입수한 L투자회사 관련 문서를 보니, L투자회사는 2007년 3월 29일~ 4월 2일 경영효율화를 명분으로 일본의 롯데상사·롯데물류·(주)롯데 등에서 분할해 만들어졌다.

L제1투자회사부터 L제12투자회사까지 총 12개로 나뉘어져 있다. 호텔롯데의 최대 지분을 소유한 것 외에 롯데로지스틱스·롯데알미늄·롯데리아·롯데푸드 등 국내 롯데 계열사들의 최대 주주이기도 하다.

2007년 분할 당시 L투자회사의 대표이사는 신격호 총괄회장이 2곳, 신동주 전 부회장이 1곳, 하마모토 에이스케 전 롯데 부회장이 9곳을 각각 맡았다.

2010년 하마모토 부회장이 퇴임하면서 신동주 전 부회장이 L4·L5·L6의 대표이사로 취임했다. 당시 신동빈 회장은 L10·L12 두 군데의 이사로 등기된 것이 전부였다. 나머지 9곳의 대표이사는 신격호 총괄회장이 맡았다.

신동주 전 부회장은 지난해 12월 26일부터 올 1월에 걸쳐 롯데홀딩스 부회장, 롯데상사 부회장 겸 대표, 롯데아이스·롯데건설·롯데리아의 이사직 등에서 잇따라 해임 된다.

이 시기에 L투자회사 등기부도 급변했다. 신동주 전 부회장은 모든 대표이사직을 퇴임하고 그 자리를 츠쿠다 다카유키 일본 롯데 대표이사가 대신한다.

또 총 10군데에 등기돼 있던 이사직에서도 모두 해임됐다. 더 이상 L투자회사의 등기부에 신 전 부회장의 이름은 존재 하지 않는다.

신동빈 회장은 L10·L12의 이사로 남았다.

당시 재계는 신격호 총괄회장이 신동빈 회장을 그룹 후계자로 지목했다고 판단했다.

이를 두고 일본의 산케이신문은 신동주 전 부회장이 야쿠자를 동원해 돈세탁을 한 혐의가 발각돼 경영진에서 추방됐다는 보도를 하기도 했다. 하지만 신격호 회장은 아직 후계자를 정하지 않은 것으로 봐야 한다는 시각이 특히 일본 현지에 많다.

한국 롯데의 지주회사격인 호텔롯데를 지배하는 L투자회사를 신동빈 회장에게 넘기지 않은 것이 이런 판단의 근거다.

일본 롯데 계열사 관계자는 "신동주 전 부회장이 일종의 제왕학 훈련과정에 있을 수 있다. 만일 신격호 총괄회장이 신동빈 회장을 후계자로 최종 낙점했다면 이미 93세로 고령인 신 총괄회장이 어느 정도 움직임을 보였을 것이다. 현재까지 L투자회사 소유구조에 움직임이 없는 것을 보면 언제라도 신동주 전 부회장이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둔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까지 L투자회사 9곳(L1·2·3·7·8·9·10·11·12)의 대표이사는 신격호 총괄회장이 맡고 있다. 신동빈 회장은 두 곳(L10·12)의 등기이사로만 등재돼 있다.

/김성현기자 minus@metroseoul.co.kr

'3억엔에 위안부 해결' 아베 발언 보도 진짜?

일본 대중지 주간현대 '아베 폭탄 발언' 폭로 보도
외교통상부 "가십성에 불과…큰 의미 둘 필요 없어"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비공개 발언을 폭로한 일본 주간지 주간현대의 보도가 한국과 중국에 파문을 일으키고 있다.

다음달 4일 발간에 앞서 지난 29일 온라인상에 올라온 주간현대 보도는 일본 내정, 중일관계, 한일관계 등에 대한 아베 총리의 폭탄 발언을 담고 있다. 일본 내정에서는 망언 제조기로 유명한 하시모토 도루 오사카 시장의 의회 진출을 약속한 발언, 중일관계에서는 중국을 가상적국으로 삼았다는 발언, 한일관계에서는 3억엔(약27억원)이면 일본군 위안부 문제가 해결된다는 발언 등이다.

중국은 이미 보도 당일 외교부 대변인 브리핑을 통해 "만약 보도가 사실이라면 일본은 진지하고 명확하게 해명해야 한다"고 요구한 상태다. 한국은 하루 뒤인 30일 외교부 대변인 브리핑에서 "우리도 필요한 경우에는 보도 내용에 대해 확인을 하고, 일본 정부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알아볼 것"이라고 했다.

한중 양국에서 이는 파문과는 달리 일본 내 반향은 크지 않은 상황이다. 주간현대는 대중지로 가십성 보도에 치우치고 있다는 일본 내 평가 때문이다. 보도의 신뢰성에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다.

주간현대는 '전쟁할 생각이 가득한 아베의 비공식 발언을 전부 쓴다'는 제목의 기사에서 한국과 관련해 "(6월) 21일에는 다음 날인 22일의 한일 국교정상화 50주년을 계기로 한국의 윤병세 외교장관이 방일해 기시다 후미오 외무장관과 회담했다"며 "그 직전에 (아베 총리는) 한일 관계에 대해 본심을 토로했다"고 보도했다.

이어 기사에는 아베 총리의 본심이라는 발언들이 소개된다. 아베 총리가 "봐라, 가만히 있으면 한국이 먼저 접근해 오는거야"라거나 "일본군 위안부 문제는 3억엔으로 해결할 수 있어. 하지만 돈 문제가 아니니까 말야"라고 말했다는 것이다.

주간현대는 "해외언론에 보도되게 되면 대부분 외교문제가 될 무책임한 말 뿐"이라며 "이러한 비공식 발언이 전혀 보도되지 않는 것을 보는 한 대형신문과 방송국을 단단히 쥐고 있는 아베 관저의 우수한 위기관리는 제대로 작동하는 것 같다"고 했다.

보도 당일 일본 내에서는 아베 친위 모임에서 나온 '비판언론은 광고를 끊어 짓뭉개야한다'는 발언을 두고 한창 논란이 뜨거워지는 상황이었다. 주간현대는 아베의 문제 발언이 언론통제로 알려지지 않았다고 주장한 셈이다.

하지만 주간현대의 보도에 크게 의미를 둘 필요가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노광일 외교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일본의 주간지는 우리나라 주간잡지와 상당히 성격이 다른 것으로 알고 있다"며 "통상 일본 주간지의 보도내용에 대해서 별 가치를 두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일본에 정통한 한 소식통도 메트로신문과의 전화통화에서 "주간현대는 대표적인 대중잡지로 우리로 치면 과거 선데이서울 정도로 일본에서 인식되고 있다"며 "일본인들도 보도 내용에 대해 가십거리 정도로 여기고 있다"고 말했다. 일본의 주간지 중에서는 주간문춘 정도가 신뢰를 받고 있다.

/송병형기자 bhsong@metroseoul.co.kr



"일본군 위안부 3억엔이면 해결" "중국은 가상적국" "하시모토에 대한 진정한 평가" 등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폭탄 발언을 담은 주간현대의 기사. /일본 주간현대 홈페이지

정부 "2030년 온실가스 37% 감축"

산업계 "추가적 감축 어렵다"

정부가 30일 발표한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에 대해 산업계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최근 국내 기업들이 환율 급변동, 글로벌 경기침체로 수출이 감소하고 수익성이 악화되고 있는 가운데 과도한 감축 목표 설정으로 경쟁력을 더욱 떨어뜨릴 것이란 지적이다.

특히 서비스 산업 비중이 높은 선진국들과 달리 우리나라는 아직도 제조업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에너지 효율도 높은 우리의 현실을 고려해서 현실적인 목표를 제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날 정부는 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유엔에 제출할 2020년 이후 기후변화 대응계획(INDC)의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로 배출전망치(BAU) 대비 37%를 확정했다. 이는 지난 11일 정부가 내놨던 14.7%, 19.2%, 25.7%, 31.3% 등 4가지 감축 시나리오에 비해 감축목표가 대폭 상향조정한 것으로 국제 사회의 비판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당시 산업계는 14.7%를 줄이는 1안에 대해서도 부담이 된다며 반발했었다.

이에 따라 확정된 2030년 온실가스 배출량은 2030년 BAU인 8억5060만이산화탄소환산톤(CO2-e)보다 37% 줄어든 5억3587만이산화탄소환산톤이다. 다만 산업경쟁력을 고려해 산업부문 감축률은 12% 수준을 넘지 않도록 했다.

하지만 철강, 석유화학, 반도체 등 산업계에서는 이미 적용 가능한 최신 감축기술들을 모두 현장에 적용해 세계 최고의 에너지 효율을 달성하고 있어 추가적인 감축여력이 없다는 입장이다.

이날 전국경제인연합회 등 30개 경제단체와 발전·에너지업종 38개사는 "경제계는 국민 부담이나 산업현장의 현실보다 국제 여론만을 의식한 이번 정부 결정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정부가 감축수단으로 제시한 원자력발전의 경우 지금도 환경단체 등의 반대가 극심한 상황에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현실적 대안이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 신재생에너지 확대 역시 비용 측면을 고려할 때 에너지 비용 상승에 따른 전기요금과 물가 인상 가능성이 높아 결국 서민경제 부담가중과 영세 중소기업의 경영여건 악화로 이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양성운기자 ysw@

6일 국회법 재의… 새누리 '표결 전 퇴장'

정의화 국회의장이 박근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국회법 개정안을 6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키로 했다. 당초 1일 예정된 본회의는 새누리당의 입장 정리를 위해 연기했다는 설명이다. 새누리당은 의원총회를 열어 개정안 재의 문제를 논의할 전망이다. 정 의장이 30일 재의 일정을 확정함에 따라 새정치민주연합은 국회 정상화에 동참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법률안 거부권을 행사한 지난 25일 정의화 국회의장이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한 뒤 굳은 표정으로 돌아서고 있다. /연합뉴스

정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헌법을 준수해야 할 입법부 수장으로서 헌법에 규정된 절차를 밟는 것이 헌법을 수호하고 절차적 민주주의를 지키는 길이며 국회의장의 의무"라며 "헌법 제53조 제4항 '대통령이 재의를 요구하면 국회는 재의에 부친다' 규정에 따라 국회법 개정안을 재의에 부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6월 25일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박 대통령이 재의를 요구한 뒤 여야가 대화와 타협을 통해 원만히 처리하길 원했고 저 역시 노력했다"며 "하지만 국회 일정은 파행을 겪고 있고 예정된 국회 본회의를 하루 앞둔 오늘까지도 진전이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 정 의장은 이 같은 이유로 본회의를 6일로 연기했다.

정의화 "내겐 헌법 수호 의무 있다"

정 의장은 "새정치연합 지도부는 국회법 개정안을 처리할 본회의 일자가 확정되면 공전상태인 국회를 정상화하겠다고 약속했다"며 "새정치연합은 오늘부터 즉시 상임위원회를 가동해 산적한 민생현안을 처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이종걸 새정치연합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국회 상임위 일정을 포함한 모든 국회 일정, 민생국회는 오늘부터 다시 시작된다"고 말했다.

정 의장은 국회법 개정안을 본회의에 상정하는 실효성을 묻는 질문에는 "무기명 비밀투표이기 때문에 (새누리당 의원들이) 들어와서 투표를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며 "좀 더 말미를 줘서 정리할 시간을 줄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재의에 참여한다"며 "의장이 직권상정을 하면 우리가 참여해서 퇴장하는 형식으로 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당 지도부 어제 생각도 대개 합의를 봤다"며 "재의와 관련해 (구체적인 방법을 정하기 위해) 의원총회는 열어야 한다"고 말했다.

/윤정원기자 garden@

아이들에게 도박 해보라는 '공기업' 마사회

용산화상경마도박장 추방대책위 기자회견 폭로
간부가 학생앞에서 "얼마나 재밌는지 아냐" 조롱


용산화상경마도박장 추방대책위는 30일 메트로신문에 사진과 함께 오른쪽에서 두번째 검은 정장 차림의 넥타이를 매지 않은 이가 "화상경마 해봐라, 얼마나 재밌는지 아냐"라고 말한 마사회 간부라고 알려왔다. /용산화상경마도박장 추방대책위 제공

"용산화상(경마)도박장 반대현장에 아이들, 학부모, 수녀님들이 있는데 마사회 간부가 와서 '화상경마 해봐라, 얼마나 재밌는지 아냐' 큰소리 치고 조롱을…또 알바 청년들 조폭처럼 도열시켜 도박객들에게 90도 인사를 강요하는 슈퍼갑질까지…."

30일 '용산화상경마도박장 추방대책위원회'가 국회 기자회견을 통해 폭로한 내용이다. 이 내용은 전날 안진걸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이 참여연대 공식 트위터에 "무한RT(리트윗)부탁! 충격적 목격담"이라고 머릿글을 달아 올린 글이다. 정방 대책위 공동대표는 메트로신문에 "현장에 있던 안 처장이 마사회 간부의 말을 듣고 격분해 현장에서 바로 올린 게시글"이라고 소개했다.

사실이라면 '공기업'인 마사회가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도박을 하라고 부추긴 셈이다. 메트로신문은 마사회에 사실확인을 요청했지만 마사회 측은 "마사회 간부가 그런 말을 한 것이 사실인지, 사실이라면 어느 간부였는지 확인해 이른 시간 내 알려드리겠다"고 말하고는 답변을 하지 않았다. 대책위 측은 본지에 마사회 간부 발언 당시의 녹취파일 내용과 현장에 있던 해당 마사회 간부의 사진을 보내왔다.

용산화상경마장은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등 6개의 학교가 밀집한 지역에 터를 잡아 논란이 돼 왔다. 또 학부모와 주민들은 물론이고 지자체와 국회의 반대에도 개장을 강행해 물의를 빚고 있다.

이날 대책위는 기자회견에서 "마사회는 그동안 용산화상경마장 문제로 큰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자 수십 번 용산화상경마장은 프리미엄급의 고급·지정좌석제로만 운영해 그동안 화상경마도박장의 문제점을 개선할 것이며 '만약에 이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용산화상경마장을 폐쇄하겠다'고 스스로 밝히고, 홍보까지 진행한 바가 있다"며 "하지만 실제로는 최저가 2000원 입장료를 새로 추가·운영하고 도박을 부추기는 4만원이 넘는 경품을 살포했다"고 밝혔다.

대책위는 "이는 마사회가 스스로 약속하고 공표한 폐쇄 사유에 해당한다"며 "농림부와 마사회는 약속대로 용산화상경마장을 즉시 폐쇄하라"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청와대, 박근혜 대통령, 국무총리실, 사행산업통합감독위는 대체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따지지 않을 수 없다"며 "공기업이 반사회적 행위를 끝없이 저지르고 있는데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는 것은 중대한 직무유기이자 마사회의 도박을 부추기는 범죄행위 공범이나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19대국회는 출범 직후부터 도심 내 화상경마장을 이전하기 위해 한국마사회법 개정을 시도했지만 소관 상임위원회 통과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 정부와 상임위 전문위원들이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용산화상경마장 문제가 불거지기 6개월 전에 새로 취임한 현명관 현 마사회장은 박 대통령의 측근 중 한명으로 이완구 전 총리 임명 당시 유력한 총리 후보 중 한 명으로 거론되기도 했다. 공교롭게도 용산화상경마장 반대에 열심인 인근 성심여중고 학생들은 박 대통령의 모교 후배들이다.

/송병형기자 bhsong@metroseoul.co.kr

"한미 탄저균 실험 공동진행 의심"

본지 5월 31일 최초 보도

우리 정부는 '사전에 전혀 몰랐다'는 입장이지만 주한미군의 탄저균 실험을 한미 양국이 공동진행하지 않았느냐는 반론이 시민단체로부터 제기됐다.

30일 국회에서 열린 '주한미군 탄저균 반입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토론회'에서 이미현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이미현 팀장은 "정부가 주피터(목성) 프로그램에 대해 전혀 아는 바가 없다고 하지만 사실상 주피터 프로그램의 일부를 한미 공동으로 진행하고 있다고 보는 것에 무게가 실린다"고 말했다.

미 국방부 공개자료에 따르면 주한미군은 2013년부터 서울 용산, 경기도 오산과 평택, 전북 군산 미군기지 내 연구실에서 생물학전 대응 실험을 하는 목성 프로젝트를 진행해 왔다. 목성 프로젝트는 연합 주한미군 포털 및 통합위협인식(JUPITR) 프로젝트의 영문 약자에서 착안해 미 국방부가 자체적으로 붙인 이름이다.

주한미군은 목성 프로젝트에 따라 국내에서 탄저균 실험을 실시했다.

이 팀장은 한미 공동진행을 의심하는 근거로 목성 프로젝트 내 핵심과제 중 하나인 '생물감시정보공유체계'(BSP)를 제시했다. 목성 프로젝트를 소개하는 자료에는 한미 간 BSP를 구축한다는 계획이 적시돼 있다. 한미 국방부는 2013년 10월 18일(현지시간) 워싱턴DC의 미군의학연구사령부에서 한미 공동 '생물무기감시포털'(BSP) 구축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세계 최초의 국가간 BSP 구축 협약이었다. 생물감시정보공유체계와 생물무기감시포털이 사실상 동일한 것 아니냐는 게 이 팀장의 지적이다. 실제 양자는 영문표현 뿐만 아니라 담고 있는 내용과 목적도 동일하다.

이 팀장은 또 2011년부터 한미 양국이 연합 생물방어연습을 진행하는 등 한반도의 생물무기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지속적 훈련을 해왔다는 점도 하나의 근거로 제시했다.

이와 관련, 메트로신문은 지난 달 31일자 보도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국내 언론 중 최초로 발굴해 알린 바 있다. 본지는 당시 '주한미군 탄저균 실험, 한국 정말 몰랐나…반대증거 나와'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이번 주한미군의 탄저균 실험은 목성 프로젝트의 최종단계였다"며 "한국 국방부가 목성 프로젝트의 핵심과제에 참여하고 있으면서도 최종단계까지 프로젝트의 진행 상황을 몰랐다고 주장하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또 "더구나 미 국방부는 프로젝트 수립 이후 공개적으로 대대적인 홍보에 나섰고, 생물무기와 관련된 전문매체들도 이를 거들었다"며 "한국 국방부가 비밀리에 진행된 프로젝트라 몰랐다고 할 수도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송병형기자

유승민은 '국민원내대표'… 정의화는 '正義化'

유, 대권 대열 합류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제1 세미나실에서 열린 새누리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유승민 원내대표가 생사기로에서도 잠시 여유를 보이고 있다. /뉴시스

박근혜 대통령이 오히려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를 키워준 꼴이 됐다.

30일 세간에서는 유 원내대표에게 '국민원내대표'라는 별칭을 붙이기 시작했다. 정치인에게 가장 중요한 지명도가 급상승했다. 거부권 정국의 최대수혜자는 유승민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다. '유 원내대표를 차기로 띄우려는 박 대통령 고도의 전략이라는 소문이 있다'는 우스갯소리도 들린다. 정의화 국회의장도 수혜자 중 한 명이다. 정 의장에게 '正義化'라는 별칭을 붙이는 사람도 있다.

최근 유 원내대표의 지명도는 급상승했다. 지지율 반등은 물론이거니와 유력한 차기 대권주자의 대열에 합류하기도 했다. 한때 박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통했던 유 원내대표지만 청와대 정책 기조에 반박하는 등 대통령의 권위에 도전하면서 미운털이 박혀왔다는 게 찍어내기에 대한 대체적인 시각이다.

30일 유 원내대표는 원내활동 정상지휘에 나섰지만 청와대와의 힘겨루기에서 얼마나 버틸 수 있겠느냐는 이야기가 나온다. 그러나 현재 그의 사퇴를 반대하며 비박계(비박근혜) 의원들이 발 벗고 지원에 나섰고 유 원내대표에 대한 호의적인 여론이 고조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퇴하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많다. "여왕님(박 대통령)은 쪽팔리게 됐고 무대(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의 별칭)는 대장 칭호를 떼게 됐으며 유승민이 보수의 대안이 됐다"고 말하는 정치권 인사도 있다.

이와 함께 유 원내대표의 부친인 유수호 전 의원도 다시금 부각되고 있다. 유 전 의원은 박정희 정권 시절인 73년 3월 판사 재임용에서 탈락했다. 71년 사법파동의 영향이 컸다는 말들이 많았다. 세간에서는 박 대통령 부녀와 유 원내대표 부자의 악연이 회자되고 있다.

정 의장에 대한 우호적인 여론도 일고 있다. 정 의장은 새누리당 출신임에도 직권상정을 최대한 자제하는 등 야당을 배려하며 여야를 잘 아우르고 있다는 게 주변의 평가다. 30일 정 의장이 당초 1일 예정된 국회 본회의를 닷새 미룬 6일로 소집하며 "박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국회법 개정안을 상정해 우선 처리하겠다"고 밝히자 그에 대한 평가는 더욱 긍정적으로 기우는 추세다.

한인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날 국회법 개정안 재의 소식을 접하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민주주의는 각인이 자신의 헌법 법률상 직무를 그대로 수행할 때 한걸음씩 나간다"며 "정권의 부나비들이 불 앞에 춤출 때 헌법대로 당연직무 수행하겠다는 국회의장, 당연한데 정의롭다"고 평가했다.

/윤정원기자 garden@

로스쿨出 경력판사 임용논란

법조계 '의혹·불신'

"기본 검증 못한 대법원 선발 절차 문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출신들의 경력판사 첫 임용을 둘러싸고 법조계가 뜨겁다. 일부 임용 예정자들에 대한 후관예우와 변호사법 위반 의혹에 따른 자질 논란부터 대법원의 블라인드 채용방식에 대한 불신까지 경력판사 임용을 둘러싼 골이 깊어지고 있다.

30일 대법원에 따르면 검사나 변호사 등 3년 이상 법조 경력을 쌓은 37명이 다음날 1일 판사에 임용된다. 이 명단에는 로스쿨 출신(변호사시험 1회 합격자) 법조인도 포함돼 임용단계부터 뜨거운 관심을 받았다.

그러나 블라인드 심사를 거쳤다는 대법원의 발표와 달리 37명 중 27명이 재판연구원(로클럭) 출신인 데다 2명은 대형 법무법인 출신이라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공정성 의혹으로 번졌다. 재판연구원은 법원에서 판사를 도와 사건의 심리 등을 하는 법률 전문가다.

현장 경험이 풍부한 경력판사를 양성해 기계적인 법 적용을 하는 기존의 문제점을 타파하자는 취지였지만 임용 예정자 70% 이상이 법원 출신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며 순혈주의의 연장이라는 비난이 불거진 것이다.

변호사 단체들은 '로클럭-로펌' 출신들이 경력판사로 임용될 것을 감안해 이들을 관리하는 후관예우도 우려하고 있다. 대법원 측은 "문제가 있을 시 내정을 취소한다"고 밝힌 상태다.

전관 출신인 이재교 변호사는 "로클럭 출신이 유독 많은 것에 대해선 "로클럭에도 우수한 사람들이 선발된다. 인재를 뽑아놓고 보니 그들이 로클럭 출신이었던 것"이라면서도 "훌륭한 법관을 만들기 위해 3년 경력은 부족한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임용 예정자 중 2명은 법 위반 의혹에 휘말렸다. 로스쿨 졸업 후 대구고등법원과 대구지방법원에서 로클럭으로 근무한 임용 예정자 A씨와 B씨가 C법무법인에 입사 뒤 근무했던 재판부 관할 사건을 대리했다는 것.

변호사법 31조 1항에 따르면 판·검사 등 공무원으로 재직시 취급했던 사건을 수임할 수 없다. 변호사 단체들이 대법원에 이들에 대한 재임용 재검토를 촉구하는 항의서한을 전달한 것도 이 같은 이유에서다.

선발 과정에서 석연치 않은 부분도 있다. 임용 대상은 3년 경력의 법조인이며 1회 변호사 시험 합격자들의 자격 발생 시점은 올해 6월말이다. 하지만 대법원은 지난해 12월, 당시 2년 6개월 경력이던 임용 예정자들에게 합격을 통보했다.

이는 대법원의 선발 방식에 대한 비판과 함께 로스쿨 출신들의 자질논란으로 불똥이 튀었고 예기치 않게 사시 존치·폐지 갈등과 맞물려 이미지를 악화시키는 결과를 불렀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의 김지미 변호사는 "선발 당시를 기준으로 하면 (로스쿨 출신 법조인들은) 3년 경력을 채우지 못한 것이다. 대법원의 제도 자체가 문제다. 선발 기준과 과정이 명확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변호사법 위반 의혹을 받는 임용자들에 대해선 "법 위반이 확실해 처벌을 받아야 한다"면서도 "기본적인 검증을 하지 못한 대법원의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연미란기자

석유공사 '국고 낭비' 포착

檢, 하베스트에 1조원 투자 정황 수사

한국석유공사가 부실 인수 논란을 빚은 해외 자원개발업체에 채무 지급 보증을 선 것 외에도 1조원 상당을 지원, 국고를 낭비한 정황이 포착돼 검찰이 수사에 나섰다.

30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임관혁 부장검사)는 석유공사가 2009년 인수한 캐나다의 자원개발업체 하베스트에 1조원 상당의 자금을 지원한 단서를 확보했다.

석유공사 재무팀 관계자는 전날 검찰 조사에서 이같이 진술한 뒤 "반면 하베스트의 운영 수입이나 배당금은 석유공사로 유입된 적이 없다"고 증언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베스트는 석유공사가 1조 3700억원을 주고 인수했지만 지난해 8월 이 금액의 3%에도 못 미치는 329억원에 매각해 부실 인수 논란이 제기된 업체다.

특히 정유와 수송, 판매 사업 등 하류부문을 담당하는 하베스트의 자회사 노스아틀랜틱리파이닝(NARL)을 함께 인수한 점이 논란을 키웠다. 당시 NARL은 영업적자가 누적될 것으로 뻔히 예상됐던 회사다.

석유공사는 유동성 위기에 처한 하베스트에 1조원 규모의 채무지급 보증을 선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별도로 석유공사가 현금과 현물 출자 방식으로 하베스트에 지원한 돈이 1조원에 이른다는 내부 진술을 검찰이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검찰은 하베스트에서 생산한 석유를 국내에 도입하려고 해도 운송비가 더 많이 들어 경제성이 없었다는 진술도 받아낸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하베스트 인수를 결정한 강영원(64) 전 석유공사 사장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한 상태다.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은 강 전 사장은 취재진을 만나 "당시 최경환 지식경제부 장관에게 하베스트 인수 관련 보고를 했지만 인수 결정은 직접 했다"고 말했다.

강 전 사장은 "하베스트 인수가 경영상 판단에 의해 이뤄졌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덧붙였다. 강 전 사장의 구속 여부는 이날 밤늦게 결정될 전망이다.

/연미란기자 actor@metroseoul.co.kr



혼인 서약하는 100쌍의 신랑신부 30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에서 열린 북한 이탈주민 100쌍 합동결혼식에서 신랑 신부가 혼인서약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빚 못 갚아도 상환 노력했다면 사기죄 성립 안돼"

돈을 빌릴 당시 경제적으로 어려웠다는 점만으로 빚을 못 갚은 채무자에게 사기죄를 적용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돈을 갚으려고 노력할 의사가 있었다면 단순한 민사상 채무불이행일 뿐 형사상 사기죄로 볼 수는 없다는 취지다.

대법원 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 부부의 상고심에서 징역 8월과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남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30일 밝혔다.

김씨 부부는 25년 동안 알고 지낸 이웃으로부터 2007년 5월~2008년 11월 세 차례에 걸쳐 모두 7000만원



을 빌렸다가 갚지 못했다.

사기죄로 기소된 부부에게 1·2심은 돈을 빌릴 당시 운영하던 업체 직원 급여도 제대로 주지 못했고 돈을 빌려 또 다른 빚을 갚아야 할 정도로 사정이 좋지 않았던 점을 고려하면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부인이 돈을 빌리면서 남편 회사가 부도 위기라는 사실을 솔직히 말하는 등 적극적인 기망행위를 했다고는 보이지 않고, 피해자도 5년이 지나서 고소한 점 등을 고려하면 오랜 기간 알고 지낸 인간관계를 고려해 돈을 빌려준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봤다.

또 돈을 빌린 시점에 김씨가 빚을 갚지 못할 수 있다고 예견했다는 점만으로는 곧바로 사기죄의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할 수 없으며, 채무불이행 사태를 피할 가능성이 있다고 믿고 성실히 노력했다면 사기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유선준기자 rsunjun@

재외국민 가족관계 등록절차 빨라진다

오늘부터 온라인 처리

7월 1일부터 재외국민이 외국에서 가족관계등록을 신고하는 절차가 빨라진다.

법원행정처는 외교부와 함께 재외국민 가족관계 등록 사무소를 개소해 운영한다고 30일 밝혔다.

외국에서 가족관계등록 신고를 할 경우 기존에는 오프라인으로 신고서류를 보내야 해서 등록 완료까지 1~3개월이 걸리고 처리 비용도 많이 들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재외공관에서 법원행정처 소속 재외국민 가족관계 등록사무소로 온라인으로 서류를 보내 처리할 수 있게 돼 등록 기간이 3~4일밖에 걸리지 않게된다.

법원행정처는 재외국민 등록사무소 설치로 가족관계등록 업무가 신속해질 뿐 아니라 일선 등록관서의 부담도 감소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김서이기자 redsun217@

metro 메트로신문사
서울시 종로구 경희궁길9(신문로2가)
TEL:02)721-9800, FAX:02)730-1551

발행·인쇄인	남 궁 호
사장·편집인	김 종 학
편 집 국 장	강 세 준
광 고 문 의	02)721-9851,3
독 자 센 터	02)721-9861

2002년 5월 31일 창간/등록번호 서울특별시 가00206

'일류' 삼성병원, 메르스에는 속수무책

의료진 또 감염 '최다'… 공공의료 취약 탓

삼성서울병원(이하 삼성병원)에서 근무하는 의사가 26일 또 메르스에 감염됐다. 메르스 확진 진료의사 5명 중 4명이 삼성병원 의사다. 감염자는 182명 중 84명이 삼성병원에서 나왔다. 절반에 육박하는 숫자다. 소위 '일류', '명품', '글로벌'이라던 삼성병원에서 왜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환자가 가장 많이 발생했을까. 전문가라던 의사들과 간호사들이 왜 메르스에 속수무책이었을까. 메르스사태가 진정세를 보이는 가운데 국민들의 궁금증은 커지고 있다.

이 같은 국민들의 메르스 궁금증을 풀기 위해서 '의료민영화·영리화저지와의료공공성강화를위한범국민운동본부(이하 의료민영화저지범국본)'가 30일 오전 '메르스에 관한 궁금한 모든 것- 8문8답' 전문을 발표했다.

먼저 메르스 확진 환자를 진료한 서울의료원, 국립중앙의료원에서 의료진 감염자는 한 명도 나오지 않았지만 유독 삼성병원에서 의료진 감염이 계속 나온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1년에 한 명 나올까 말까 하는 감염병을 대비하려고 상당한 비용을 투자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삼성병원이 관련 보호장구 규정을 따르지 않아 메르스 사태를 더욱 확대시키고 있다는 비난 역시 이같은 공공의료에 취약했기 때문으로 보았다.

방역전문가는 "환자 1명만 보더라도 간호사는 최소 2명이 있어야 하고, 레벨D 보호구(전신 보호복과 고글(안경), 의료용 마스크, 장갑, 덧신 등이 포함된 보호장비)는 20세트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17일 지침이 내려지기 전 삼성병원의료진은 수술가운을 입고 있었다. 삼성병원이 메르스 최대 진원지가 된 이후 의료진에 대한 미흡한 보호구 착용으로 또 한번 비난을 받은 것이다.

방역당국은 최근 삼성병원 소속 의료진이 잇따라 메르스 감염 확진 판정을 받은데 대해 D등급에 준하는 보호구 착용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삼성병원측에 따르면 17일부터 모든 의료진에게 D등급 보호구를 착용하도록 했지만 그 이전에는 에어로졸(기침 분산)이 발생하는 때 이외에는 전신보호복 대신 수술복을 입고 근무를 하도록 했다.

이 같이 미흡한 보호구 착용으로 인한 의료진 감염사례는 모두 4명으로 이송요원 135번 환자를 진료하다 감염된 의사 2명(181번·169번 환자)과 방사선사(162번 환자), 간호사(164번 환자) 등이다.

또한 '왜? 삼성병원에서 메르스 환자가 많이 발생했나'라는 의혹에 대해 의료민영화저지범국본은 "병원의 부주의와 거대 기업병원의 이윤추구 때문"이라고 답했다.

범국본에 따르면 삼성병원 응급실에 메르스 감염자가 2박3일(5월 27~29일)동안 무방비 상태로 있었다. 이 환자는 응급실에 올 때 메르스 환자가 경유했던 평택성모병원에 입원한 사실을 밝혔으나, 병원의 부주의와 입원할 병실의 부족으로 응급실에 있게 된 것이다. 그리고 2박3일 동안 수많은 환자들과 보호자, 문병객이 응급실을 방문해 감염됐다.

삼성병원은 5월 29일에 메르스 확진을 확인하고도, 3일간 응급실에서 치료받은 환자와 보호자 그리고 방문객, 의료진을 제대로 확인해 격리하지 않았다. 이미 확산이 심각해져서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기 시작한 6월 10일에야 부랴부랴 조사에 들어갔지만 시기를 놓쳤다. 정부 또한 10일 넘게 삼성병원에 대한 공식적인 역학조사를 시행하지 않았다.

또한 병원에서 감염된 메르스 환자들이 전국을 돌아다니게 된 이유에 대해 범국본은 "대부분의 OECD국가들이 주치의 제도 등 체계적인 의료전달체계를 통해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적절하게 제공받는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주치의가 없고, 환자들이 직접 병원을 찾아다니며 진료를 받는 데다 무려 2000병상이 넘는 초대형 병원도 있다"고 답한다.

이런 거대 병원들은 지역의 환자만 진료해서는 이 병상을 채울 수 없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환자를 진료해 '전국구 병원'이라고 불린다. 삼성병원은 전국에서 온 환자를 자유롭게 진료했고 이 환자들이 다시 전국 곳곳으로 메르스를 퍼뜨렸던 것이다. 환자들은 가까운 곳에서 최선의 진료를 받는 것이 정상적인데, 의료전달체계를 무너뜨린 삼성병원은 전염병을 확산시킨 최대 진원지가 됐다. 결국 메르스사태를 통해 정부가 삼성병원을 제대로 통제 하지 못했음이 드러났다.

/최치선기자 chisunti@metroseoul.co.kr

생활 법률

택배 배송 지연, 보상 가능할까



A씨는 어머니 생신을 맞아 인터넷으로 10만원 상당의 스카프를 구매했다. A씨는 늦어도 3일 이내 배송이 된다는 업체의 말만 철석같이 믿고 기다렸다. 그러나 스카프는 6일이 지나서야 도착했다. 예정 날짜보다 3일이나 늦은 것이다. 결국 A씨는 어머니 생신 때 선물을 드릴 수 없었다. 업체는 배송량이 많아 늦어졌다며 죄송하다는 말만 반복했다. 물건은 받았지만 뭔가 억울한 이 상황. 보상받을 수 없을까.

결론부터 얘기하면 도착 예정일을 초과한 만큼 금전적 보상을 받을 수 있다. '택배표준약관' 제20조에 따르면 택배 회사는 운송물의 수탁·인도·보관·운송에 관해 주의를 태만하지 않았음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소비자에게 운송물 연착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도착 예정일을 초과한 일수에 택배 회사가 운송장에 기재한 요금액의 50%를 곱한 금액(초과일수×운송장기재요금액×50%)을 받을 수 있다.

예컨대 A씨의 경우 '3일×10만원×50%'로 계산하면 15만원을 보상받을 수 있다는 얘기다. 배상액 한도는 운송장기재 금액의 200%를 한도로 한다. 구매한 물건이 10만원일 경우 배상액은 최대 20만원을 넘을 수 없다는 얘기다. 다만 일시를 특정한 운송물의 경우 초과일수에 상관없이 최대 배상액인 200%까지 가능하다. 만약 택배 회사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해 택배가 지연됐을 경우에는 규정과 상관없이 모든 손해에 대해 회사가 책임을 져야 한다.

택배회사와 자율적인 분쟁해결이 어려운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운영하는 '1372소비자상담센터(국번 없이 1372)'를 통해 한국소비자원의 피해구제 절차를 진행하는 방법도 있다. 이 방법이 통하지 않을 경우 지급명령(독촉절차)을 신청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청구금액이 2000만원 미만일 경우 변호사를 선임하고 않고 소액사건심판을 청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연미란기자 actor@

대전 이어 세종까지… 최태원식 창조경제 총력전

SK, 농업형 창조경제 전진기지로 전폭 지원 나서
'잘사는 농촌' 성과 창출 목표로 '新농사직설' 시범



30일 세종창조경제혁신센터 출범식에 참석한 황교안 국무총리(가운데)와 김창근 SK수펙스추구협의회 의장(황교안 왼쪽), 이춘희 세종시장(황교안 오른쪽) 등이 창조경제의 싹을 키운다는 의미의 축하 세리모니를 하고 있다. /SK 제공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창조 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하나둘 결실을 맺고 있다. 최 회장은 부재 중에도 박근혜 대통령이 전격추진하고 있는 창조경제 사업에 보탬이 되고자 총력 지원에 나서달라는 메시지를 수펙스추구협의회 등에 전달하는 등 적극적인 의지를 나타내고 있다.

이에 따라 SK는 30일 문을 연 세종창조경제혁신센터(이하 세종센터)가 농업형 창조경제의 전진기지로 자리잡기 위해 추진하는 다양한 민관협력 활동을 전폭적으로 지원한다.

이전 대전창조경제혁신센터의 성공에 힘입어 SK는 세종센터에서 농촌형 창조경제 조기 활성화를 위해 전사적으로 역량을 동원하고 있다.

김창근 수펙스추구협의회 의장 등 그룹 최고 경영진이 직접 주도하는 '창조경제혁신추진단'을 구성하고, SK텔레콤과 SK하이닉스, SK E&S의 현직 CEO 등이 직접 추진단 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특히 대전과 세종지역 창조경제 활성화 관리 지원 업무에 상근직 임직원 30여명을 배치했다.

SK는 '잘사는 농촌' 성과 창출을 목표로 세종센터와 ICT 기술과 빅데이터를 농업에 적용하는 '신(新)농사직설'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스마트팜과 스마트로컬푸드시스템, 창조형 두레농장 등이 주요 내용이다.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하는 스마트팜은 작년 10월 대전 혁신센터가 열리면서 100곳이 오픈됐다. 스마트팜을 통해서 스마트폰으로 시간과 장소를 가리지 않고 생육환경을 원격 제어하는 환경이 갖춰지면서 생산성은 향상되고 노동력과 생산비용은 감소했다.

농림부가 스마트팜으로 딸기 농사를 지은 농민 10가구를 대상으로 시범사업 성과를 평가한 결과 생산성은 22.7% 증가했다. 노동력과 생산비용은 각각 38.8%와 27.2% 감소했다. 만족도는 4.5점(5.0만점)으로 나왔다.

SK와 세종센터는 스마트팜을 향후 스스로 생육환경을 조절할 수 있는 수준으로 업그레이드 시키고 농업뿐 아니라 수산업(양식), 축산업(축사·양돈·양계), 임업으로 확장할 계획이다. 하반기에는 IoT기능을 적용한 메기 양어장도 선보일 계획이다.

SK는 세종센터에서 지속가능한 농업 성장동력원 발굴에도 박차를 가한다. 오는 7월 지역 제한 없이 전국의 모든 예비 창업가와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농업 벤처 지원대상을 공모, 10월까지 최종 선발한다.

선발된 벤처기업은 세종센터 내 사무공간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고 2000만원의 초기 창업자금도 지원받는다. 세종센터와 SK는 벤처 창업지원금으로 200억원을 조성해 투융자 자금으로 활용한다.

벤처기업의 인큐베이팅은 SK 임직원 등 전문가들이 '1대1 맞춤식'으로 진행한다. SK는 벤처기업과 공동 연구, 특허·기술 제공은 물론, 공동 사업화 및 국내외 투자유치 기회도 제공한다. 세종센터는 또 벤처기업이 보유한 기술을 시험할 수 있도록 센터와 두레농장에 '테스트 랩'을 둔다.

세종센터는 대전(ICT)과 전남(BT) 등 의 창조경제혁신센터와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대덕연구단지의 연구기관들과 특허기술을 공유할 계획이다. 전국의 농업첨단기술을 활용하는 혁신 클러스터 조성이 목표다. 전국 단위의 농업 벤처 공모전을 공동으로 운영하고, 기술매칭과 멘토링, 창업교육 등 육성 프로그램도 함께 연계하기로 했다.

특히 대전센터의 우수 벤처기업 기술을 농업에 적용하는 시험무대도 마련된다. 대전센터 입주업체인 나노람다코리아의 분광 센서 기술을 이용, 농산물의 신선도와 당도, 부패 정도를 파악하는 기술을 개발 중이다. 대전센터의 기술 벤처와 세종센터의 '테스트 베드' 기능이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경우, 창조경제의 대표적인 성공사례로 주목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장동현 SK 창조경제혁신추진단장(SK텔레콤 사장)은 "대전센터의 첨단 기술을 농업 생산 과정에 적용해 농촌 경제 활성화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정문경기자 hm0108@metroseoul.co.kr

대기업 동반성장 성적표

기아차·삼성전기·코웨이 등 19곳 '최우수'
농협유통·이랜드리테일 등 14곳 '최하위'

기아자동차와 삼성전기, 코웨이, 포스코 등 19개 기업이 지난해 동반성장지수 평가에서 최우수 등급을 받았다. 농협유통과 롯데홈쇼핑, 이랜드리테일 등 14개 기업은 최하위인 '보통' 평가를 받았다.

동반성장위원회(위원장 안충영)는 30일 서울 서초구 반포동 팔래스호텔에서 제35차 회의를 열고 112개 대기업을 대상으로 한 '2014년 동반성장지수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평가는 112개 대기업이 체결한 '공정거래 및 동반성장 협약'에 대한 공정위의 이행실적 평가와 동반위의 중소기업 체감도조사 점수를 합산해 최우수-우수-양호-보통 4등급으로 산출했다. 19개 기업이 최우수 등급을, 37개 기업이 우수, 42개 기업이 양호, 14개 기업이 보통 등급을 받았다.

최우수 기업은 기아자동차·삼성전기·삼성전자·코웨이·포스코·현대다이모스·현대미포조선·현대삼호중공업·현대자동차·KT·LG디스플레이·LG생활건강·LG유플러스·LG전자·LG CNS·SK건설·SK종합화학·SK텔레콤·SK C&C 등 19곳이다.

최하위인 보통 등급을 받은 기업은 농협유통·덕양산업·동부제철·동원F&B·롯데홈쇼핑·에스앤티모티브·오뚜기·이랜드리테일·이랜드월드·태광산업·한국미니스톱·한국쓰리엠·한솔테크닉스·CJ오쇼핑 등 14곳이다.

2014년도 동반성장지수 평가 결과

등 급	기업명 (가나다 순)
최우수 (19개사)	기아자동차 삼성전기 삼성전자 코웨이 포스코 현대다이모스 현대미포조선 현대삼호중공업 현대자동차 KT LG디스플레이 LG생활건강 LG유플러스 LG전자 LG CNS SK건설 SK종합화학 SK텔레콤 SK C&C
우수 (37개사)	계룡건설 대림산업 대상 대우조선해양 두산인프라코어 두산중공업 롯데마트 롯데푸드 르노삼성자동차 삼성디스플레이 삼성물산 삼성엔지니어링 삼성중공업 삼성테크윈 삼성SDI 삼성SDS 신세계백화점 아모레퍼시픽 유한킴벌리 한국항공우주산업 현대로템 현대모비스 현대엔지니어링 현대엘리베이터 현대위아 현대제철 현대중공업 현대파워텍 효성 힘스 CJ제일제당 GS건설 GS리테일 LG이노텍 LG하우시스 LG화학 SK하이닉스
양호 (42개사)	경신 농심 대우건설 대한항공 두산건설 두산엔진 롯데건설 롯데백화점 롯데슈퍼 롯데제과 롯데케미칼 만도 성우오토모티브 성우하이텍 아시아나항공 이마트 제일모직(舊에버랜드) 코닝정밀소재 코리아세븐 코오롱글로벌 태영건설 포스코건설 하이트진로 한국GM 한국델파이 한라비스테온공조 한진중공업 한화건설 현대건설 현대백화점 현대산업개발 현대오토에버 현대홈쇼핑 홈플러스 BGF리테일 GS홈쇼핑 KCC KCC건설 LF LS산전 LS엠트론 LS전선
보통 (14개사)	농협유통 덕양산업 동부제철 동원F&B 롯데홈쇼핑 에스앤티모티브 오뚜기 이랜드리테일 이랜드월드 태광산업 한국미니스톱 한국쓰리엠 한솔테크닉스 CJ오쇼핑

농협유통·이랜드리테일·한국쓰리엠 등 3곳은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낙제점을 받았다.

업종별로는 정보통신 업종에서 평가대상 기업 7개사 중 5개가 최우수 등급을 받았을 만큼 실적이 우수했으며 도·소매, 건설 등 비제조업종에서 지수가 개선됐다고 동반위는 밝혔다.

유통분야 역시 롯데마트와 신세계백화점, GS리테일 등 우수 등급이 3곳, 이마트와 롯데백화점 등 양호 등급이 9곳으로 지난해보다 개선된 모습을 보였다.

중견기업 군에서는 코웨이가 전년에 이어 '최우수' 등급을 받았다. 계룡건설·르노삼성자동차·대상·유한킴벌리·한국항공우주산업 등 5개사도 '우수' 등급을 받았다. '우수' 등급 이상 기업은 지난해 3개사에서 6개사로 증가했다.

동반위가 조사한 중소기업 체감도 조사는 79.4점으로 지난해보다 3.5점 올랐다. 유통부문에서는 도·소매업(77.6점)의 협력관계 체감도가 지난해보다 6.9점, 식품업(76.0점)이 5.2점, 백화점업(79.2점)이 5.1점 상승했지만 홈쇼핑업의 경우 체감도가 전년대비 1.2점 하락했다. 2차 협력사의 체감도는 70.1점으로 전년에 비해 6.1점 개선됐다.

안충영 동반위 위원장은 "동반성장지수평가 취지는 대·중소기업간 동반성장과 상생협력을 업계 전반으로 확산시키는 것에 있다"면서 "지난 3년간 표준계약서 사용 실태가 개선되는 등 중소기업과의 상생협약에 대한 대기업의 이해도가 높아졌다"고 말했다.

안 위원장은 "112개사는 자발적으로 평가에 참여한만큼 동반성장 점수가 낮아도 의지가 있다는 것을 높이 평가했으면 좋겠다"고 설명했다.

동반위는 이날 소모성자재구매대행(MRO)을 상생협력으로 전환키로 했다. MRO시장은 중소 유통기업과 대기업간 충돌을 빚으면서 2011년 대기업 MRO 전문업체에 매출액 3000억원 이상 기업을 대상으로 영업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가이드라인을 적용했다.

지난 1월 열린 34차 동반위에서는 기존 가이드라인을 유지하되 지난 3년간 효과와 실효성을 검토한 후 이번 회의에서 개정 여부를 심의키로 한 바 있다. 이날 회의에서 동반위는 MRO 상생협의 추진팀을 만들어 올해 말까지 대·중소기업계의 상호제안을 통해 기존 MRO 가이드라인 개선안을 포함한 MRO 시장 보호·육성을 위한 상생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다만 상생방안이 마련될 때까지는 현행 가이드라인을 준용하기로 합의했다.

/박상길기자 sweatsk@

세종창조경제혁신센터의 개소를 축하합니다



농업과 과학기술이 만나는 새로운 혁신 세종이 대한민국 창조경제의 미래를 열어가겠습니다

농업과 과학기술 ICT가 만나는 창조마을에서부터
도시와 농촌, 세종과 대덕이 함께 하는 상생과 협업
새로운 벤처의 발굴과 육성에 이르기까지
대한민국 농업에 새로운 혁신을 불어넣는 창조경제
세종창조경제혁신센터와 SK가 함께 합니다

창조마을의 진화 및 발전

농업에 첨단 ICT기술을 적용한 '스마트팜'을 널리 보급하고 그 기능을 높여가겠습니다. 또한 맞춤형 영농정보 플랫폼인 '新농사직설'을 개발하고, 창의인재 육성 프로그램인 '스마트러닝'을 확산해 나가겠습니다.

도농 상생 체계 구축 및 운영

생산자와 소비자를 연결하는 스마트 로컬푸드를 만들어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귀농 지원 인프라인 '창조형 두레농장'을 만들어 운영하겠습니다. 아울러 세종 시민을 대상으로 창의 · IT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세종·대덕 협업체계 구축 및 벤처 육성

농업과 첨단 과학기술인 ICT를 연결하는 벤처를 발굴하고 키워가겠습니다. 또한 기존의 대덕 연구단지, 강원과 전남 창조경제혁신센터와 농업과 ICT 기술을 접목한 벤처 육성을 위한 협력체계를 만들어 운영하겠습니다.

세종창조경제혁신센터

OK! SK

계좌이동제 첫발… 은행권, 고객확보 사활

오늘부터 자동이체계좌 조회·해지 한번에 가능
KB국민·신한·우리銀 등 19곳 부터 단계적 시행

모든 자동이체 계좌를 몇번의 클릭만으로 손쉽게 조회하고 변경할 수 있는 '계좌이동제'가 첫 발을 내디뎠다.

당장 1일부터 고객은 52개 금융회사에 등록된 자동이체를 한꺼번에 조회할 수 있다. 내년 6월까지 공과금 납부와 개인 간 자동 송금, 연결계좌 변경 등도 단계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집토끼(기존 고객)와 산토끼(신규고객)를 잡기 위한 금융권의 경쟁도 치열할 전망이다.

◆ 내년 6월까지 계좌이동제 단계적 시행… "조회·해지·변경 가능"

30일 금융결제원은 금융위원회, 전국은행연합회 등과 손잡고 1일부터 '자동이체통합관리시스템(Payinfo·페이인포)'을 도입한다고 밝혔다.

이는 각 금융회사에 분산된 자동이체서비스를 은행권 공동으로 종합 관리할 수 있는 세계 최초의 금융회사 통합 인프라다.

고객은 KB국민·신한·우리·하나은행 등 19개 은행 개인·법인 계좌의 전체 자동납부 목록을 조회·해지할 수 있다. 서비스를 이용하는데 별도 회원가입이나 비용부담은 없다.

우체국이나 새마을금고, 신용협동조합, 저축은행 등 33개 금융회사는 7월 중 조회·해지 신청이 가능하다.

전체 요금기관의 해지 서비스는 10월까지 마무리된다. 10월부터는 대형 요금 청구기관을 중심으로 계좌변경도 할 수 있다.

이밖에 자동납부와 자동송금은 내년 2월부터 인터넷뿐 아니라 일반 은행지점에서도 이용 가능하다.

◆ "226조 자금 대이동 전망"

한편 시중 은행들은 '계좌이동제'를 새로운 수익 창출의 기회로 삼아 신규 고객과 기존 고객을 동시에 유치하겠다는 전략이다.

특히 계좌이동의 주 대상인 수시입출식예금의 경우 3월 말 현재 226조3000억원에 달하는데다 법인예금도 192조8000억원을 기록하고 있어 뭉칫돈을 잡기 위한 경쟁이 치열하다.

우리은행은 본부부서 실무자들로 구성된 TFT를 통해 계좌이동제 관련 방안을 마련하는 동시에 '우리 주거래 고객 상품 패키지'도 판매 중이다.

이는 주거래 고객에 대한 혜택을 늘린 상품으로 지난 3월 출시 이후 3개월 만에 통장 1조원, 카드 10만좌, 대출 7000억원을 돌파했다.

IBK기업은행은 보험과 적금을 결합한 'IBK평생설계장학적금'과 최장 만기가 21년인 '평생 든든 자유적금' 등 생애주기별 차별화된 금융상품을 내놨다.

장기 고객 혜택을 높여 고객이탈을 방지하고 맞춤형 혜택과 계열사간 시너지를 확대해 신규 고객을 유치하겠다는 복안이다.

NH농협은행은 지난 4월 은행과 보험, 증권 등 거래 시 포인트를 통합해 적립하는 'NH올원카드'를 출시했다. 또 TF를 통해 계좌이동제 대응안을 논의하는 한편 임직원을 대상으로 아이디어 공모전도 실시하고 있다.

KB국민은행은 올해 초부터 10개 내외의 유관부서로 이뤄진 비상설협의회를 구성해 계좌이동제 대응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특히 금리나 수수료 등 가격측면의 단기 대응은 자제하고 상품과 서비스, 고객관리제도 전반의 경쟁력을 제고하는 등 고객만족도와 로열티 향상을 도모할 방침이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현재 주거래 우수고객을 대상으로 운영중인 KB스타클럽제도와 더불어 차별화된 고객관리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면서 "하반기에는 제휴서비스 등 우대혜택을 확대하는 방안과 함께 계좌이동제에 대응한 개인자산관리서비스 확대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백아란기자 alive0203@metroseoul.co.kr

현대카드 '젊은 건축가 프로그램' 전시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
오늘부터 9월30일까지

현대카드는 30일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에서 '현대카드 컬처 프로젝트 18 젊은 건축가 프로그램 2015'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컬처프로젝트는 음악과 미술, 무용, 애니메이션, 건축 등 다양한 장르의 혁신적이고 실험적인 문화 컨텐츠를 소개하는 현대카드의 문화마케팅 브랜드다.

18번째 컬처프로젝트로 진행되는 '젊은 건축가 프로그램(YAP·Young Architects Program)'은 뉴욕현대미술관이 젊은 건축가를 발굴하고 이들에게 재능을 펼칠 기회를 주고자 매년 개최하는 공모 프로그램이다.

이는 1998년 첫 선을 보인 이래 칠레와 이탈리아, 터키 등으로 그 대상지역을 확장하고 있다. 현대카드는 지난 해부터 아시아 최초로 참여하고 있다.

올해 전시는 국립현대미술관과 뉴욕 현대미술관이 공동으로 주최하며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진행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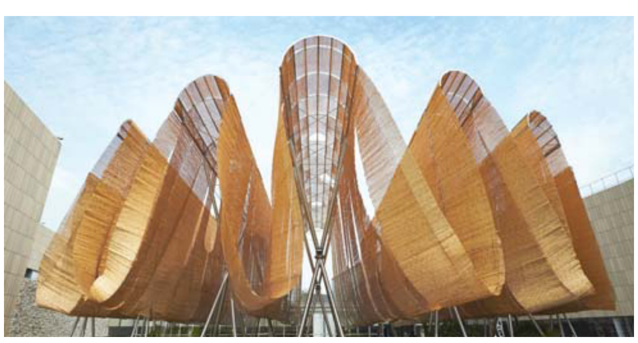
특히 '젊은 건축가 프로그램'의 최종 건축가로 선정된 'SoA(이치훈, 강예린)'의 작품 '지붕감각'이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 마당에 설치된다.

'지붕감각'은 잊혀져가는 지붕의 느낌을 되살려보려는 시도에서 출발했으며 갈대발을 활용해 대형 지붕을 형상화했다.

또 제8전시실에서는 최종 건축가인 'SoA(이치훈, 강예린)'를 비롯해 최종후보군에 오른 국형걸, 네임리스 건축(나은중, 유소래), 씨티알플롯(오상훈, 주순탁), 건축사사무소 노션(김민석, 박현진)+빅터 장의 작품도 소개된다.

아울러 국내에서 1차로 추천받은 건축가들과 2015년 젊은 건축가 프로그램 국제 파트너 기관들의 우승작과 최종후보작도 전시될 예정이다.

현대카드 관계자는 "건축을 주로 눈으로만 감상하는 것에 그치는 경우가 많다. 이번 컬처 프로젝트를 통해 시각뿐만 아니라 청각과 촉각 등 다양한 감각을 활용해 건축을 새롭게 경험하고 즐길 수 있게 되길 바란다"며 "젊은 건축가 프로그램이 국내 신진 건축가들에게 의미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일반 시민들이 건축에 보다 친근하게 다가설 수 있는 디딤돌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백아란기자





"환전·송금하고 선물받아가세요" 신한은행은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맞아 '2015 썸머 드림 환전·송금 페스티벌'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오는 9월 29일까지 영업점을 통해 USD 500 상당액 이상을 환전하거나 송금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한다. /신한은행 제공

서민 250만명 대부업체서 11조원 빌려

평균 대부액 448만원
48.3% 생활비 용도로

지난해 서민 250여만명이 대부업체에서 11조원이 넘는 대출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소형 대부업체는 감소한 반면 대형 대부업체는 대부 규모를 확대한 것으로 집계됐다.

30일 금융위원회와 행정자치부, 금융감독원은 전국 등록 대부업체를 대상으로 '2014년 하반기 대부업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작년말 기준 총 대부잔액이 11조1600억원에 달했다고 밝혔다. 이는 2013년보다 11.4% 증가한 수치다.

같은 기간 대부업체 거래고객 수는 1년전보다 7000명이 늘어난 249만3000명으로 나왔다. 1인당 평균 대부액은 448만원으로 1년전의 403만원보다 11.1% 늘었다.

대부업 이용기간(대형대부업체 기준)은 1년 미만인 고객이 55.9%로 1년 이상(44.1%)보다 많았다.

차입용도별로는 생활비가 48.3%로 절반에 달했으며 사업자금 31.4%, 타대출 상환이 6.2% 순으로 조사됐다.

이용자의 절반 이상은 회사원(52.0%)이었고 자영업자가 26.2%, 주부가 8.0%로 나타났다. 신용등급은 4~6등급이 22.9%, 7~10등급이 77.1% 비중을 차지했다.

한편 대부업체별로는 대형사의 몸집이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말 기준 등록 대부업자 수는 8694개로 1년 전보다 6.8% 감소했다.

여기에는 정부가 지난해 4월부터 대부업 최고금리를 연 39%에서 34.9%로 인하한 점이 영향을 줬다. 아울러 비대면 대부 권유 제한, 중개수수료 상환제 시행 등으로 대부 중개가 감소한 점도 영향을 미쳤다.

실제 개인 대부업자 수는 7016개로 1년전보다 7.9% 감소했다.

반면 자산 100억원 이상 대형 대부업체 수는 165개로 정부가 실태조사를 시작한 2008년 3월 이후 7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특히 개인신용대출 상위 10개 대부업체의 대부잔액은 6조6679억원으로 지난 1년간 16.0%나 늘었다.

이들 업체는 TV광고 확대 등 적극적인 영업을 통해 대부규모를 확대한 것이다.

상위 대부업체의 TV광고 선전비만도 지난해 924억원에 달했다.

결국 영업환경이 열악한 개인 등 영세 대부업체 중심으로 폐업이 지속되면서, 대형 대부업체 중심으로 시장 재편이 가속화된 셈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법정 최고금리 위반과 불법채권추심 등 불법사금융 피해방지를 위해 검·경, 지자체 등과 공조해 대부시장에 대한 단속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백아란기자

대림산업, 노른자 잇딴 수주실패 '빨간불'

삼호가든3차·신흥2구역, 경쟁사에 밀려
타 건설사 심한 견제로 실적도 다소 저조

대림산업이 재개발·재건축 노른자 지역에서 연거푸 수주에 실패했다. 당초 두 지역은 타 경쟁사보다 우위에 있어 기대감이 높았던 지역이다. 이번 수주 실패가 추후 시공사 선정에 악영향을 미칠 지 주목받고 있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삼호가든맨션3차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은 지난 20일 시공사 선정 총회를 열고 현대건설을 재건축 시공사로 선정했다.

이날 동작구 흑석동 원불교회관에서 열린 총회에서 현대건설은 전체 조합원 440명(투표자 429명) 중 175표를 얻었다. 반면 대림산업과 롯데건설은 각각 155표, 96표를 얻는데 그쳤다.

삼호가든3차는 서울 서초구 반포동에 위치한 재건축 단지로 강남권 재건축 최대어로 꼽히는 지역이다. 재건축 물량은 총 835가구, 조합분(424가구)을 제외하고도 400가구 이상이 일반에 분양된다.

특히 이 단지는 반포주공1단지, 신반포15차 등 추후 강남권에서 진행되는 재건축·재개발 사업 진출의 교두보로 주목받았다.

이 때문에 건설업체 간 경쟁이 심화되면서 지난 11일 자치구인 서초구가 조합원들에게 금품과 향응을 제공했다는 의혹을 받는 건설사들에 대해 서초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하는 사태가 벌어지기도 했다.

대림산업은 이어 진행된 성남시 신흥2구역 재개발사업에서도 수주에 실패했다.

지난 28일 성남시청에서 열린 시공사 선정 총회에서 대림산업은 1964명 중 748표(부재자투표 포함)를 얻는데 그쳤다. GS·대우건설 컨소시엄은 1186표를 얻어 시공사로 선정됐다.

이 지역은 4400여가구에 도급공사비만 6500억원에 달하는 재재발 '대어'로 꼽힌다.

앞서 대림산업은 이 단지 수주를 위해 대대적인 파격제안을 했다.

공사비는 3.3㎡당 349만9000원을 제시해 GS·대우보다 255억원의 총 비용을 줄였다. 사업비 조달금리는 경쟁사(6%)의 절반 수준인 3.9% 고정금리를 제시했다.

또 조합원에게 각 500만원씩 무이자이주비와 별도로 이사비용을 지급하기로 했다. 이 지역 조합원 수가 약 2000명에 달하는 것을 감안하면 약 100억원을 이사비용으로만 제공하는 것이다. 이는 인근 중1구역, 금광1구역 다른 사업지에서도 찾아 볼 수 없는 획기적인 제안이었다.

재개발·재건축 수주액 1위를 기록했던 지난해와 달리 올해 수주 실적도 다소 저조하다.

주요 건설업체의 올해 수주현황을 분석한 결과 대림산업은 현재 3건에서 3753억원의 수주고를 기록했다. 이는 GS건설(3조3845억원)의 10분의 1 수준이다. 이 밖에 롯데건설(1조3595억원), SK건설(4540억원)보다도 적은 수주액이다.

업계 관계자는 "(대림산업이)재개발·재건축 시장에서 두각을 보이다 보니 타 건설사의 견제가 심했던 것으로 안다"며 "이번 수주 실패가 바로 추후 진행되는 지역에 영향을 미칠 지 주목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림산업 관계자는 "삼호가든3차의 경우 현대건설이 새 브랜드를 론칭하는 등 우리보다 더 간절했던 것이 조합원들의 마음을 움직였던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다만 그는 "신흥2구역의 경우 최근 인근에 진행 중인 금광1구역을 따낸 만큼 이번 수주 실패가 추후 입찰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김형석기자 khs84041@metroseoul.co.kr

"주택관리업자 개정안, 입주자 권리 훼손"

국토부 "사업자 선정과정 투명성 마련될 것"

국토교통부가 최근 행정예고한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에 대해 아파트입주자단체의 반발이 거세다. 일부 입주자 단체는 이번 개정안이 입주자대표의 권한을 축소한 대신 주택관리자의 권한을 늘렸다고 주장하고 있다.

30일 당국에 따르면 국토부는 지난 18일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전부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이 개정안은 오는 7월 10일까지 고시되며, 이의제기가 없을 시 오는 8월 개정된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 아파트입주자 단체인 전국아파트연합회(이하 전아연)는 입주자들의 의견을 묻지 않고 사업주체(관리소장)의 의견만 포함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전아연이 지적하는 대표적인 개정안 세부내용은 주택관리업자에 대한 입주자 등의 만족도 평가 폐지다.

만족도 평가는 입주자들이 위탁관리회사와 관리소장에 대한 입주민 선택 권리를 보장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하지만 이 평가가 폐지되면 입주자들이 이들 업체를 견제할 수 없는 것.

전아연 관계자는 "기존에 문제점이 있는 부분을 현실성 있게 고치는 것이 당연한데도 국토부는 이 조항을 없애면서 입주자가 사업주체를 견제할 수 없게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미분양 등 입주 미완료 단지의 경우 사업주체가 입주자 대표회의를 대신할 수 있는 점과 수의계약금액을 2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해 사업주체가 입주자대표회의를 거치지 않고 계약을 맺을 수 있는 권한이 강화된 점도 문제로 꼬집었다.

김원일 전아연 사무총장은 "이번 개정안은 국토부와 위탁관리회사 단체와 관리소장단체의 의견만을 반영한 결과"라며 "이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국민의 70%가 거주하는 공동주택의 입주자들의 권리가 침해를 받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국토부는 전아연의 주장에 대해 '사실무근' 이라고 해명했다. 개정안 마련 시 위탁업체 외에도 입주자를 비롯한 다양한 분야의 의견을 수렴했다는 것.

전성이 국토부 주택건설공급과 주무관은 "이 개정안은 주택관리사업자와 사업자 선정 과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마련했으며 일부 단체만을 위해 개정안을 마련하지는 않았다"며 "이 개정안이 시행되면 입주자들의 권리도 실질적으로 향상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만족도 조사의 경우 그간 입주자의 참여율 저조로 실효성이 없어 폐지하기로 했다"며 "수의계약금액 상향 조정의 경우 그간 입찰을 하지 않아야 더 싼 계약도 규정상 200만원 이상이면 무조건 입주자를 통해 입찰을 해야하는 문제점을 시정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형석기자



메트라이프생명 '더해주고 채워주는 정기보험' 출시 데미언 그린 메트라이프생명 사장이 전자청약시스템(MOS)을 통해 새로 출시한 '무배당 더해주고 채워주는 정기보험'에 1호 고객으로 가입하고 있다. /메트라이프생명 제공

"하반기 집값·전세, 더 오른다"

건산연 "수도권 1.6%, 지방 1.2% 상승 예상"

하반기 매매가와 전세가가 더 오를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올해 분양 물량은 2000년 이후 최고치인 40만 가구에 이를 것으로 예상됐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30일 오후 2시 서울 강남구 논현동 건설회관 2층 대회의실에서 '2015 하반기 건설·부동산 경기전망 세미나'를 열고 "거시경제 어려움으로 저금리 기조가 지속되면서 주택시장에 실수요와 투자수요 유입이 이어질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허윤경 연구위원은 "하반기 주택시장은 미국 금리 인상에 따른 대출금리 상승 여부가 주요한 변수"라면서도 "2% 후반대로 내려앉은 거시경제의 어려움으로 금리 상승 시기가 미뤄지거나 제한적인 변화만 예상된다"고 말했다.



특히 "서울 강남권 재건축시장에서 다수의 멸실이 발생, 매매시장 호조세와 전세시장 불안이 동시에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연구원은 하반기 수도권은 1.6%, 지방은 1.2%의 집값 상승률을 점쳤다. 전세는 전국적으로 2.3% 오를 것으로 내다봤다.

분양시장은 상반기에 이어 호황이 계속될 전망이다. 올해에만 분양(승인) 물량은 2000년 이후 최고치인 40만 가구 수준으로 예상됐다. 또 인허가 실적은 62만 가구로 예측됐다. 도시형생활주택 등과 같은 아파트 외 물량이 증가한 영향이다.

올 한해 국내 건설수주액은 11.2% 증가할 것으로 점쳐졌다. 민간수주가 17.5% 늘면서 건설경기 회복을 주도하는 반면, 공공수주는 1.0% 증가에 그칠 전망이다. 건설투자 역시 전년 대비 3.0% 증가가 예상됐다.

이홍일 연구위원은 "최근 경기 호조세가 단기적으로는 수익성 개선 등 긍정적 효과를 발휘하고 있지만 장기적 관점에서는 경기 변동성 확대, 경기 순응적 사업방식 증가 등 잠재적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증가세가 단기간에 그치지 않도록 정부 대책이 필요하고, 건설사 스스로도 사업 구조 개선 노력이 병행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선옥기자 pso9820@

웰빙휴가 열풍… '페달' 밟는 자전거株

| 마켓인사이트 |

해외 진출·고가품 판매 증가 성장 전망에 증권사 '러브콜' 기대 선순환… 주가 동반성장



삼천리자전거가 월트디즈니와 콜라보레이션 한 아동용 자전거 '겨울왕국'을 출시했다. /삼천리자전거 제공

'자전거주'가 여름 휴가철과 해외 시장 진출 등의 호재에 힘입어 국내 증권사들의 러브콜을 받고 있다.

대표적인 자전거주로는 국내 자전거업계 1위 '삼천리자전거'를 비롯해 업계 2위인 '알톤스포츠'와 '참좋은레저' 등을 꼽을 수 있다. 참좋은레저는 자전거 사업부문인 첼로스포츠와 여행사업부문인 참좋은여행으로 구성된 종합레저회사다.

자전거 시장은 웰빙 트렌드 확산과 여가·레저 문화 확대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지난해말 현재 국내 자전거 시장의 규모는 약 193만대로 지난 2009년부터 5년간 연평균 2.1% 성장했다. 매출액은 약 5130억원으로 같은 기간 연평균 7.3% 성장한 것으로 추정된다.

대다수 전문가들은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맞아 자전거주들의 실적과 주가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면서 "특히 자전거 시장점유율 1위 사업자인 '삼천리자전거'의 꾸준한 성장세가 예상된다"고 진단했다.

이런 기대감에 덕분에 이들 기업의 주가도 동반 상승했다. 30일 코스닥시장에서 삼천리자전거의 주가는 전일대비 2.60% 오른 2만5650원에 마감했다. 알톤스포츠와 참좋은레저의 주가도 전일대비 1.48%, 3.44% 올라섰다.

이왕섭 KDB대우증권 연구원은 "국내 보급률 확대와 함께 수출까지 본격화된다면 중장기적으로 지속적인 성장이 가능할 것"이라며 업종 최선호주로 '삼천리자전거'를 꼽았다.

이 연구원은 "주요 이용 연령층이 10대에서 구매력이 있는 30대 이상으로 이동하면서 주요 제품군도 저가의 생활자전거에서 고가의 고급형 자전거로 변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전거 시장의 성장과 트렌드 변화에 따라 정부의 자전거 산업에 대한 우호적 정책과 그에 따른 자전거 관련 인프라 확대도 지속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또 수출로 성장을 꾀하고 있는 2위 업체 '알톤스포츠', 고급 자전거 시장과 여행사업부의 성장으로 실적 개선이 예상되는 '참좋은레저'를 관심 종목으로 제시했다.

이정기 하나대투증권 연구원은 "현재 국내 자전거 보급률(29.8%)은 선진국에 비해 낮기 때문에 더 높아질 가능성이 크다"면서 "유아용 세발자전거와 전기자전거 등의 판매가 증가하는 등 주가에 긍정적 재료들이 많다"고 분석했다.

이와 함께 해외시장 진출에 대한 기대감도 크다.

김태성 미래에셋증권 연구원은 "삼천리자전거의 경영진이 중장기적 관점에서 해외시장 진출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연구원은 "해외 진출로 인한 수익 기여는 올해 10억원 미만이지만, 2~3년 내에 해외에서 의미있는 수준의 매출을 시현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그는 "지난해부터 해외 진출에 노력해 온 삼천리자전거 경영진이 해외 시장에 대해 보다 적극적인 진출 노력을 시작했다는 점이 긍정적"이라고 덧붙였다.

/김민지기자 minji@metroseoul.co.kr



CMA체크카드 '잘 나가네' 신한금융투자는 지난 29일 'CMA R+ 체크카드'가 발급 2만장을 돌파했다고 밝혔다. 이는 최고 4.6% 추가금리 혜택을 준다. /신한금투 제공

亞, 그리스 '후폭풍' 소멸… 관망심리↑

中 투자심리 회복에 동반 상승

그리스 사태의 후폭풍이 하루만에 누그러졌다.

그리스 사태를 관망하는 분위기가 형성되면서 아시아 주요 증시가 일제히 상승세로 마감했다.

특히 전날까지 급락세를 나타냈던 중국증시는 당국의 경기부양책 기대감에 투자심리가 되살아났다.

전문가들은 "그리스가 디폴트로 가더라도 유럽연합(EU), 유럽중앙은행(ECB), 국제통화기금(IMF)이 주축이 돼 통제 가능하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고 보고 있다.

우선 중국 증시는 인민은행(PBOC)의 유동성 공급 소식에 힘입어 장중 5% 급락했으나, 결국 5% 넘게 급등하며 마감했다.

30일 상하이종합주가지수는 전일대비 5.53% 상승한 4277.22포인트에 거래를 마쳤다. 상하이종합지수는 약 7년 만에 가장 큰 변동폭을 보였다.

이날 상하이지수는 1.14% 하락한 4006.75에 출발한 다음 낙폭을 확대하면서 장중 5% 넘게 급락, 4000선을 하회했다. 그러나 인민은행(PBOC)의 유동성 공급 소식이 전해진 이후 오후부터 낙폭을 만회하기 시작했고 5% 넘게 급등했다. 선전성분지수도 5.69% 오른 1만4337.97포인트에 마감했다.

일본 증시도 그리스 사태 우려가 완화되면서 4거래일 만에 반등에 성공했다. 이날 닛케이225 평균주가지수는 0.63% 상승한 2만235.73엔에 거래를 마쳤다. 토픽스지수도 0.34% 오른 1630.40엔에 마감했다.

종목별로는 소니의 주가가 8.3% 하락하며 약 3개월래 최저치를 나타냈다.

대만 가권지수 역시 전일 대비 0.94% 상승한 9323.02로 마감, 그리스에 대한 우려를 날려버렸다.

/김민지기자

위기의 이부진… 면세점 제동에 주가 뒷걸음질

면세점 사업을 향해 달려가던 호텔신라에 제동이 걸렸다. 예상치 못한 '독과점 조사'란 복병을 만났기 때문이다.

30일 유가증권시장에서 호텔신라는 전일 대비 1000원(0.89%) 내린 11만1500원에 장을 마감했다.

현대산업은 등락을 반복하다 전날과 동일한 6만6200원으로 보합 마감했다.

앞서 호텔신라는 현대산업개발과 손잡고 HCD신라면세점이란 합작법인으로 국내 면세점 입찰 경쟁에 뛰어 들었다.

증권가에서는 HDC신라면세점의 면세점 선정 가능성을 높게 점치며 주가 상승을 부추겼다.

삼성증권은 "HDC신라면세점이 서울 시내 면세점에 선정될 가능성은 80%"라고 내다봤다. 하나대투증권도 선정 사업자 1순위를 호텔신라로 꼽았다. KTB투자증권은 호텔신라에 대해 "관리 및 운영능력, 지리적 요건에서 경쟁 사업자 대비 우위 점수가 예상된다"고 진단했다.

실제 호텔신라는 현대산업과 합작한 HCD신라면세점으로 면세점 입찰에 나서기로 한 지난 4월12일 이후 장중 한때 12만8000원까지 치솟기도 했다.

내달 예정된 사업자 선정일까지 호텔신라에 걸림돌은 없어 보였다. 그러던 지난 17일 국회에서 '공정거래법 위반' 논란이 불거져 나오면서 상황은 반전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0일 신규 면세점 운영권을 신청한 기업들의 독과점 실태를 확인하기 위한 조사에 착수했다. /연합뉴스

야당 공정거래법 위반 지적 내달 사업자 선정에 악영향

이날 민병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국회 정무위원회 공정위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롯데와 호텔신라에 신규 면세점 특혜를 허용하는 것은 위법"이라며 공정거래법 제3조와 제4조를 근거로 제시했다.

공정거래법 제3조에 따르면 상위 1개 업체가 50% 이상의 시장 점유율을 갖거나 상위 3개 업체가 75% 이상의 시장 점유율을 갖는 경우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된다.

이번 서울 시내 면세점 대기업 입찰에 참여한 기업 중에서는 지난해 매출 기준 롯데(50.8%)와 호텔신라(30.5%)가 이에 해당한다.

공정거래법 제4조에 따르면 공정위는 경쟁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해야하고 이를 위해 관계 행정기관장에게 필요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민 의원은 "관세청이 두 업체에 서울 시내 신규 면세점 허가를 해준다면 명백하게 독과점적 시장구조를 조장하는 행위"라며 "공정위는 서울 시내 면세점 실태를 명확히 파악하고 독과점적 시장구조 개선을 위해 관세청에 적극적인 시정조치 의견을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현재 공정위는 신규 면세점 운영권을 신청한 기업들을 대상으로 독과점 실태를 확인하는 조사를 진행 중이다. 입찰에 참여한 24개 기업 중 전체 점유율 80%를 넘게 차지하고 있는 롯데와 신라에 대해 독과점 여부를 가리는 것이 최대 쟁점이다.

한때 12만원을 호가하던 호텔신라 주가는 이달 들어서만 6.69% 하락했다. 같은 기간 시가총액도 3000억원 이상 줄었다.

호텔신라가 신규 사업자로 선정될 경우 공정위는 면세점 시장의 독과점 구조를 방치했다는 비난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상황이어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김보배기자 bobae@

"국민연금, 합병 결정에 기업 지배구조 감안해야"

주주권 행사 긴급 간담회
오는 17일 합병 주총 캐스팅
경제계 주주권익 검토 지적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안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승계 작업의 일환이라고 보는 시각이 많은 만큼, 국민연금이 기업의 지배구조를 감안해 의사결정을 내려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국민연금 주주권 행사 관련 긴급 간담회에는 최동익 새정치민주연합 국회의원 진행 아래 채이배 경제개혁연구소 연구위원, 류영재 서스틴베스트 대표, 신장섭 싱가포르국립대 경제학과 교수, 최홍석 보건복지부 국민연금재정과 과장 등이 참석했다.

삼성물산의 최대주주로 국민연금이 오는 17일 열릴 삼성물산의 주주총회에서 캐스팅 보트 역할을 할 것으로 주목되면서 국민연금에 주주권익에 대한 주문이 이어졌다.

채 연구위원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은 하나의 지배권 하에 있는 회사라는 점이 본질적인 문제"라며 "이번 합병안은 삼성그룹의 지배구조 나아가 한국 전체 기업 지배구조까지 영향을 미친다"고 밝혔다.

그는 이번 합병안이 이재용 부회장의 승계 과정 일환이며 국민연금이 국가경제에 미칠 영향을 감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무리한 합병은 이전 단계에서도 있었고 에버랜드·삼성SDS 상장에서도 문제가 됐다"며 "이번 사건으로 이 부회장이 주주와 사회로부터 신뢰를 잃으면 삼성그룹과 국가경제 모두 마이너스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연금이 이러한 관점에서 기업의 지배구조를 감안해서 의사결정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충분히 고려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류 대표 역시 "어떤 사람이 경영하느냐에 따라 성과는 달라질 수 있다"면서도 "삼성그룹은 글로벌 톱 기업인데, 아버지를 잘 만나서 경영 능력이 검증되지 않은 사람에게로 (승계가) 넘어가는 것은 그룹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편 신 교수는 "국민연금이라는 기관이 3세 승계의 허용 여부를 판단하는 기관인지부터 생각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최 과장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이 합병하는 이유와 시너지 효과에 대해 철저히 분석할 것"이라며 "합병비율에 관해 외국계 펀드와 시민단체가 이야기하는 부분도 포함해서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그는 "삼성 쪽에서 주주 권익을 강화할 방안을 발표할 내용에 대해서도 검토해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참석하기로 했던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 관계자는 불참했다.

/임은정기자 eunj71@metroseoul.co.kr



삼성전자 모델이 30일 삼성전자 수원사업장 생활가전동 프리미엄 하우스에서 로봇청소기 '파워봇' 신모델 3종을 소개하고 있다. /삼성전자 제공

파워봇, 새 심장 탑재… 진공흡입 거뜬

삼성전자 신모델 3종 출시
디지털 인버터 모터 장착
일반 로봇보다 140배 강력

삼성전자는 로봇청소기 '파워봇' 신모델 3종을 출시한다고 30일 밝혔다.

삼성 '파워봇'은 기존 로봇청소기의 쓸어 담는 방식이 아닌 디지털 인버터 모터를 탑재해 진공 흡입이 가능하며, 최첨단 센서로 뛰어난 이동성을 갖췄다. 지난해 첫 출시 후 시장의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에보니 쿠퍼 컬러의 삼성 '파워봇' 신모델은 일반 로봇청소기보다 약 140배 강력해진 디지털 인버터 모터를 채용해 강력한 진공 흡입력이 특징이다.

리모컨에서 나오는 불빛을 따라가면서 필요한 부분만 선택적으로 청소가 가능한 '포인트 클리닝' 기능도 인식 가능 거리가 기존보다 약 2배 확장됐다.

또 무선공유기를 통한 Wi-Fi 연결로 집 안에서는 물론 외출 중이거나 해외 여행 중에도 언제 어디서나 스마트폰으로 간편하게 '파워봇'의 주요 기능을 조작할 수 있다.

팝 레드와 팝 옐로우 컬러의 신모델은 '파워봇'의 장점과 핵심 기능은 유지하면서 가격 부담을 줄인 제품이다.

강력한 모터와 삼성 진공청소기의 먼지 분리 기술인 '싸이클론 포스' 넓은 흡입구의 '와이드 빅 브러시'가 적용돼 효과적인 청소가 가능하다.

작은 장애물까지 감지하는 '풀뷰 센서', 실내 구조를 꼼꼼하게 분석하는 '네비게이션 카메라', 문턱 같은 장애물도 쉽게 넘어가는 '이지패스 휠' 등의 기능도 갖췄다.

박병대 삼성전자 생활가전사업부 부사장은 "앞으로도 소비자 목소리를 적극 반영한 혁신적인 제품을 지속적으로 선보이겠다"고 말했다.

삼성 '파워봇' 신모델의 출고가는 에보니 쿠퍼 컬러 제품은 139만원, 팝 레드와 팝 옐로우 컬러 제품은 84만원이다.

한편 삼성 '파워봇'은 최근 호주 소비자 협회 정보지인 '초이스(Choice)'의 로봇청소기 평가에서 1위를 차지했다. 미국 전자제품 평가 전문 매거진인 '리뷰드닷컴'으로부터 10점 만점을 획득했다. /조한진기자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 당근책 '배당 상향'

윤주화 패션사장 "30% 수준"
거버넌스·CSR 위원회 신설



30일 서울 영등포구 콘래드호텔에서 열린 제일모직 기업설명회에 참석한 윤주화(가운데) 제일모직 사장, 김신(왼쪽) 삼성물산 상사부문 사장, 김봉영(오른쪽) 제일모직 대표이사가 자리에 앉고 있다. /뉴시스

제일모직이 삼성물산과의 합병 성공을 위해 배당 상향과 거버넌스·CSR위원회 신설카드를 꺼냈다.

윤주화 제일모직 패션부문 사장은 30일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열린 긴급 기업설명회(IR)에서 "지속적으로 주주와 소통하겠다. 배당 성향은 30% 수준을 지향한다"며 "회사 투자기호 등을 고려해 점진적으로 배당을 상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자리에서 윤 사장은 "이사회의 독립운영 방안을 위해 전원 사외이사로 구성된 거버넌스위원회를 신설해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인수합병 등을 심의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그는 "위원 중 1명은 주주이익 보호담당 위원으로 선임해 이사회와 주주 간의 소통을 맡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외부 전문가와 사내전문인력으로 CSR(기업의 사회적책임) 전담조직을 구성해 글로벌 기업의 주주·시장·사회에 기여한 사례를 연구해 정책에 반영키로 했다.

제일모직은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와 소액주주연대가 문제 삼고 있는 합병비율과 관련해 분명한 선을 그었다. 지난달 26일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은 합병을 공시하면서 1대 0.35의 합병비율을 정했다.

이날 IR에서 김봉영 제일모직 리조트건설부문 사장은 "(삼성물산과의) 합병비율은 충분히 합리적 의사결정을 했다"라며 "합병비율을 재산정할 계획은 현재로선 없다"고 밝혔다.

김신 삼성물산 상사부문 사장은 "경영진에서 합병비율을 플러스 마이너스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했다"며 "계열사간 거래는 10% 조정을 검토할 수 있는 조항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합병 케이스 135건 중 계열사 85건의 경우 프리미엄 디스카운트를 적용한 사례가 단 한 건도 없다"며 "이는 법의 취지가 매우 제한적으로 적용하라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조한진기자 hjc@

구본무 회장 장학정신… LG '상아탑' 27년째 후원

구본무 LG 회장이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분야 중 하나인 LG그룹의 '상아탑' 후원이 올해로 27년째를 맞았다. 학계 인재 양성을 위해 1989년 대학교수들의 해외연구를 처음 지원한 이래 한 해도 거르지 않고 지속하고 있다.

LG연암문화재단(이사장 구본무)은 29일 서울 여의도 LG트윈타워에서 '연암해외연구교수 증서수여식'을 개최했다. LG는 '연암해외연구교수 지원사업'을 통해 이공계와 사회과학에서 어문·역사·철학까지 다양한 분야의 대학 교수 30명을 선발해 1년간 해외 연구비를 지원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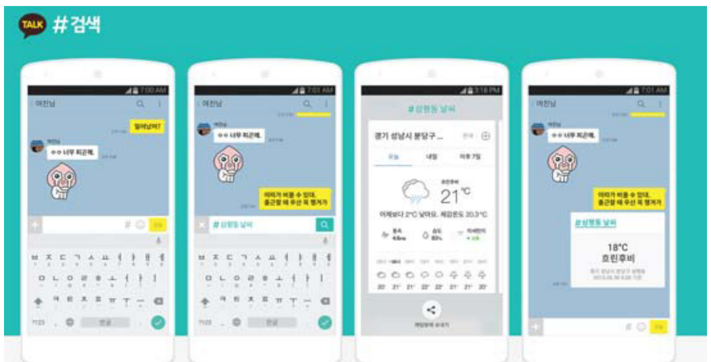
구본무 LG그룹 회장이 29일 여의도 LG트윈타워에서 열린 제27회 연암해외연구교수 증서수여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구 회장은 이날 "교수 여러분의 연구 역량이 높아지면 대학이 강해지고, 우리 사회의 지적 수준도 높아진다는 확고한 신념으로 대학교수의 해외연구를 후원해왔다"며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교수가 많아지면 그만큼 훌륭한 인재를 많이 키우고, 결국 교수의 능력이 대학과 인재의 경쟁력이 되고 나아가 산업과 국가경쟁력의 기반이 된다"고 밝혔다. 이어 "그런 뜻에서 LG는 열정과 역량이 뛰어난 대학교수의 해외연구를 계속해서 후원해 나갈 것"이라며 "해외연구를 통해서 얻은 성과를 제자들은 물론 우리 사회와 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아낌없이 나눠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LG연암문화재단이 지원한 교수는 총 747명, 해외 연구비는 약 230억원에 달하고 있다. /양성운기자 ysw@

#서울날씨… 카톡으로 물어보세요

다음카카오 '#검색·채널' 서비스
포털 활용 친구간 정보공유 가능



다음카카오가 다음과 카카오의 합병 전 특화된 분야를 잘 살려서 시너지를 발휘할 수 있는 첫 서비스인 '샵(#)검색'과 '채널'을 내놨다.

다음카카오는 30일 서울 충정로 LW컨벤션센터에서 프레스톡 행사를 열고 카카오톡 '샵(#)검색'과 '채널' 서비스를 선보인다고 밝혔다.

샵 검색은 카카오톡 채팅방에서 '#'(해쉬태그) 명령어로 바로 정보를 검색하고 이를 다시 공유할 수 있도록 만든 기능이다. 채널 서비스는 '빠른' 검색과 '정확하고 다양한' 정보를 원하는 이용자에게 최적화된 환경을 구현한 카카오톡 내부 검색 서비스다. 모바일 사용 환경을 더욱 편리하게 해주는 역할을 해 가장 밀접한 생활 플랫폼으로 거듭나겠다는 계획이다.

박창희 카카오톡 팀장은 "합병 이전 카카오에 검색 솔루션이 없어서 거듭했던 고민을 합병 이후 다시 일깨웠다"며 "검색으로 사람을 연결하고 지금까지와는 다른 모바일 검색을 선보이고자 했다"고 전했다.

이어 "카카오톡은 이미 단순한 메신저를 넘어 게임, 콘텐츠, 커머스 등 다양한 방식으로 이용자를 연결하는 모바일 플랫폼으로 성장해왔다"면서 "페이스톡과 카카오TV, 샵검색, 채널 등 신규 서비스를 기반으로 앞으로 더욱 새로운 기능을 접목해 생활형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상호 다음카카오 검색팀장은 "한 자리에서 큰 화면으로 정보를 습득하는 PC와 달리 모바일 검색은 이동 중 작은 화면으로 결과를 확인하고 지인과 공유하는 경향이 강하다는 점에 주목했다"고 밝혔다.

이어 "의도의 명확성과 요구하는 답변의 구체성 등에 따라 질의 군을 구분해 각 군에 맞는 검색 결과를 얻을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했다"고 설명했다.

카카오검색에는 여러 카테고리를 섞은 하나의 통합 웹을 만들어 만족도가 높은 문서를 최상위에 노출하는 방식을 적용했다.

또 고해상도의 이미지를 제공하고 여러 번 클릭하지 않고도 통합검색 결과 내에서 통합검색 결과 내에서 동영상을 소비할 수 있도록 편의성을 높였다.

/정문경기자 hm0108@metroseoul.co.kr

기사제보=02)721-9861



대우조선해양
'머스크 프로젝트' 완료
초대형 컨선 20척 인도

대우조선해양이 30일 AP 몰러-머스크사에 20번째 초대형 컨테이너선을 인도하며 프로젝트를 완료했다.

대우조선은 2011년 머스크로부터 1만8000TEU(1TEU는 약 6m 컨테이너 1개)급 컨테이너선 20척을 동시 수주한 바 있다.

이날 명명을 겸한 인도식에는 양사 임직원과 선주·선급 등 관계자 50여명이 참석했다.

'마틸드 머스크(Mathilde Maersk)'로 명명된 해당 선박은 7월 1일 부산신항으로 출항한다.

인도를 마친 1만8000TEU급 컨테이너선 1척의 갑판 넓이는 축구장 4개 크기로, 20척을 연결할 경우 80개 축구경기장을 만들 수 있다.

20척 컨테이너선 규모를 보면 20피트 컨테이너 36만개를 운반할 수 있는데 이는 부산항이 일주일간 처리하는 물량과 맞먹는다.

20척 선박에 적재할 수 있는 길이 6m 컨테이너를 일렬로 놓을 경우 총 길이만 2160㎞로 서울에서 도쿄까지 왕복할 수 있는 거리가 된다.

해당 선박은 경제성, 에너지 효율성, 친환경성을 만족시킨 트리플-E급(Triple-E Class : Economy of scale, Energy efficiency, Environment friendly) 선박으로 주목을 받아 친환경 선박의 모델이 되고 있다고 사측은 전했다.

한편 이달 초 머스크는 1만9630TEU급 컨테이너선 11척을 대우조선에 재발주했다. /이정필기자

"2002년 6월 29일, 잊지 않겠습니다!"

한화 방산무문 임직원 제2연평해전 13주기 추모 영화 '연평해전' 단체관람

㈜한화 방산부문(사장 이태종) 임직원은 제2연평해전 13주기를 맞아 자체적인 추모행사를 열었다고 30일 밝혔다.

이 사장을 포함한 한화 방산부문 전 임직원은 전날 오전 일과 시작 전 전사 장병에 대한 묵념을 했다.

오후에는 회사 인근 극장에서 영화 '연평해전'을 단체 관람했다.

이번 행사는 방위산업을 담당하는 기업으로서 국가 안보의 중요성과 국군 장병의 희생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취지로 시행됐다.



29일 이태종 한화 방산부문 사장(왼쪽 두 번째)이 연평해전 영화시작 전 직원들과 극장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행사에 참가한 임유진 한화 대리는 "우리 군 장병의 용기와 희생에 감사하다. 영화에 대한 평가는 개인차가 있겠지만, 우리 장병에 대한 마음은 누구나 같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정필기자 roma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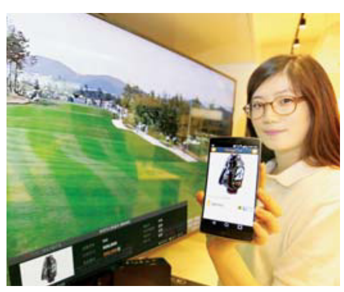
LGU+, IPTV 기반 'T-커머스' 서비스

SBS와 맞손… 채널 확대키로

LG유플러스(부회장 이상철)는 SBS(대표 이웅모)와 함께 인터넷(IP)TV 기반의 T-커머스 서비스를 출시한다고 30일 밝혔다.

양사가 이번에 선보인 T-커머스는 TV 시청자에게 '광고'와 '정보'를 동시에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다. TV 시청 중에 간접광고(PPL) 상품정보를 받아보고 바로 구매할 수 있는 것이 장점이다. 또 광고시간에는 프로모션 참여와 광고 상품 구매까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화면에 상품안내 버튼이 나올 때 리모콘 빨간키를 클릭하면 해당 상품에 대한 정보 혹은 구매 페이지를 스마트폰으로 받아 볼 수 있는 연동 스크린 기능이 제공돼 TV 시청을 방해하지 않고 이용 가능하다. 관련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과 쇼핑몰은 펀진(대표 김득화)이



사내 모델이 LG유플러스와 SBS가 함께 출시하는 T-커머스 서비스를 알리고 있다. /LG유플러스 제공

제공한다. 양사는 7월 1일부터 SBS, SBS Golf 채널을 시작으로 연내 SBS FunE, SBS Plus, SBS Sports, CNBC, MTV 등 7개 채널로 확대할 계획이다.

박종욱 LG유플러스 IPTV사업담당 상무는 "고객에게 TV를 시청하면서 가치있는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인포머스형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 이라고 말했다.

/정문경기자

SK C&C, 동반성장지수 '최우수'

표준하도급 계약서 정착 등 협력사 존중 경영활동 인정

SK C&C(대표이사 박정호)는 30일 동반성장위원회가 발표한 '2014 동반성장 지수 평가'에서 최고 등급인 '최우수 등급'을 받았다고 밝혔다.

2014 동반성장지수평가는 지난 한해 동안 기업의 동반성장 수준을 평가한 것으로 대상 기업은 112개사로 이중 19개 기업에게만 최우수 등급을 부여할 만큼 등급 심사가 엄격했다는 평가다.

동반성장지수평가는 동반성장위원회가 기업의 동반성장 수준을 계량화한 지표다. 매년 평가를 통해▲최우수▲우수▲양호 ▲보통 등 4개 등급으로 동반성장지수를 발표하고 있다.

SK C&C 관계자는 "이번 최우수 등급 획득은 모든 사업·경영 수행 과정에서 비즈 파트너사와 서로 신뢰하고 존중하며 긴밀한 협력관계를 만들기 위해 노력한 그동안의 동반성장 경영활동을 인정 받은 결과"라고 말했다.

SK C&C는 표준하도급 계약서 사용을 정착시킨 데 이어 ▲협력사 운영자금의 직접 대여 ▲동반성장펀드조성·지원 ▲체계적인 온·오프라인 교육 무상 지원 ▲기술자료 임치지원 등의 기술 지원·보호 ▲BP사 CEO 대상 세미나 및 간담회 개최 ▲건강검진, 경조사 지원 등의 복리후생 제도 공유 등 대·중소 상생을 위한 다양한 동반성장 경영활동을 펼쳐가고 있다. /정문경기자

바른이 세상만들기 1

매년 **5월 마지막주 일요일**은 **'바른이의 날'**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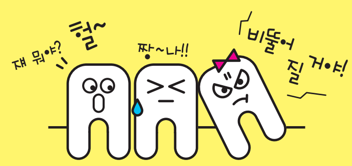


바른이가 되자!

자라나는 우리 아이들의 밝은 미래가 바로 설 수 있도록
대한치과교정학회가 제일 먼저 앞장 서겠습니다

바른이를 통해 바른이가 되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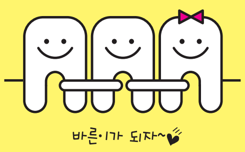
전체 인구의 70% 이상이 잠재적 치과교정이 필요하며 평균적으로
교정이 필요한 아이들은 10명 중 6명이라는 놀라운 통계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에 대한치과교정학회는 여러 후원사 및 협찬사와 함께
바른이 세상 만들기 캠페인을 주최하게 되었습니다.
비뚤어진 치아와 턱관절때문에 고통받는 많은 분들에게 큰 힘이 되어드리겠습니다.





미안해하지 않도록...

관심이 필요합니다.



고용 안정·노조 활동 등 신뢰 회복 남아

한화테크윈 공식 출범

노조 "협의없이 위로금 지급" 한화 "타협할 정도도 중요"

삼성에서 한화의 방위산업 계열사로 재출범한 한화테크윈이 주주총회와 출범식을 마치고도 노동조합의 농성이 끊이지 않아 논란이 일고 있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한화테크윈 노조는 협의 없이 지급된 위로금에 불만을 표시하고 있다. 또 사업장 외부 간판 교체를 못하도록 저지하고 있다.

한화테크윈 노조는 위로금보다 노조활동 인정과 고용안정을 우선 보장받기 위해 사측의 성의있는 교섭이 진행될 때까지 농성을 이어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한화테크윈 임직원들이 고용안정·노조활동 보장을 요구하며 농성을 벌이고 있다. /전국금속노동조합 제공

전날 성남 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주총에서는 노조가 일찌감치 출입구를 막고 사명변경과 사내이사 선임 안건 등을 반대했다. 그 결과 상공회의소 직원들과 주총 의장단의 출입을 방해하던 노조원 140여명은 업무방해 혐의로 경찰에 연행됐다. 결국 오전에 예정됐던 주총은 오후 5시께 용역을 동원해 상황을 통제한 후에야 진행됐다.

노조는 주총이 끝나고 일괄 지급된 4000만원의 위로금은 "협의 없이 사측에서 일방적으로 지급한 위로금"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사측은 위로금을 2000만원에서 4000만원으로 노조 측에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이날 한화테크윈 측이 크레인을 동원해 삼성테크윈의 간판을 떼려하자 노조원들은 몸을 줄로 묶고 이를 저지했다. 이 같은 상황은 창원, 판교 등 모든 사업장에서 진행되고 있다고 노조는 전했다.

한화테크윈은 앞으로 5년간 구조조정은 없을 것이며 노조가 요구하고 있는 부분도 협상을 거쳐 수렴하겠다는 입장이다.

문상환 전국금속노종조합 경남지부 부장은 "사측이 5년 동안 구조조정은 없을 것이라고 하는데 공식적인 협상이나 표명이 없어 5년 후에는 어떻게 될지 불안하다. 특히 현장 근무자들은 사무직 근무자보다 이러한 불안감이 더 큰 상태"라며 "노조활동보장 또한 실질적으로 노조를 인정하는 사측의 배려부터 찾아볼 수 없다. 노조원들을 모두 합하면 3000여명이 되는데 이를 조직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선 개선해야할 부분이 많다"고 말했다.

한화테크윈 측은 "한화테크윈 노조의 입장은 이해가 간다. 하지만 요구하고 있는 것을 모두 다 들어주기에는 무리가 있다. 노사가 타협할 수 있는 정도를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며 "회사 측도 경영 상황을 고려해 위로금을 제시했고 앞으로 있을 협상이 원만히 해결되길 바랄 뿐"이라고 말했다.

/정용기기자 yonggi@metroseoul.co.kr

삼성重, 1조1786억원 규모 해상플랫폼 수주

삼성중공업은 노르웨이 스타토일(Statoil)사로부터 해상플랫폼 2기를 1조1786억원에 수주했다고 30일 밝혔다.

삼성중공업이 수주한 플랫폼 2기는 노르웨이 스타방가시 서쪽 140km 해상에 위치한 요한 스베드럽 유전에 투입되는 해양 생산설비다.

납기는 2018년 말까지다.

해당 플랫폼은 원유를 정제·생산하는 프로세스와 유정에서 채굴한 원유를 프로세스까지 이송하는 라이저로 구성된다.

설비 중량은 프로세스 플랫폼이 약 2만5000톤, 라이저 플랫폼이 약 2만1000톤에 달한다.

설비가 투입되는 요한 스베드럽 유전은 추정 매장량이 17억~30억 배럴에 달하는 초대형 광구다.

향후 노르웨이 석유생산량의 최대 25%를 담당하게 될 핵심 유전으로 꼽힌다. /이정필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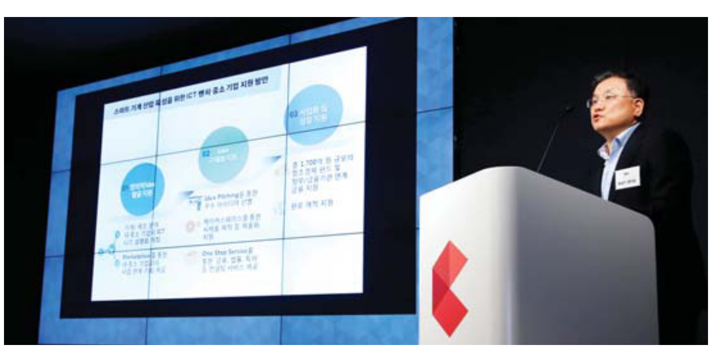
경남창조경제혁신센터–두산, 비즈니스 매칭 나서

경남창조경제혁신센터와 두산이 기계·제조 분야와 정보통신기술(ICT) 간 융복합을 위한 비즈니스 매칭에 나섰다.

양측은 기계·제조 분야 기업이 필요로 하는 ICT와 중소.벤처기업의 기술을 연결하기 위해 29~30일 서울과 창원에서 '제1회 메카트로닉스 ICT 기술 니즈(needs)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메카트로닉스 허브'를 비전으로 내세우고 있는 경남창조경제혁신센터가 스마트 기계산업 육성의 기반을 마련하고 관련 기업들을 매칭해서 새로운 비즈니스를 창출하기 위해 마련한 행사다.

설명회에서는 두산인프라코어의 '건설기계 자동화·무인화 개발 니즈와 필요 기술', 두산중공업의 '사물인터넷 기술을 활용한 발전소 안전 관리 솔루션 니즈' 등 총 9개의 프로젝트가 소개됐다. /이정필기자



경남창조경제혁신센터 최상기 센터장이 29일 서울 강남구 대치동 구글캠퍼스에서 열린 '제1회 메카트로닉스 ICT 기술 니즈 설명회'에서 발표를 하고 있다.

현대차, 미국프로풋볼 4년간 공식 후원

주요 행사 브랜드 마케팅

현대자동차가 미국 프로풋볼리그(NFL)를 후원하며 스포츠 마케팅을 강화한다.

현대차는 NFL 자동차부문 공식후원을 29일(현지시간) 시작했다.

사측에 따르면 NFL은 1억8800만여 팬을 보유한 미국 최고의 인기 스포츠다.

현대차는 이번 NFL 후원을 통해 2019년까지 4년간 각종 마케팅 및 판촉 행사에 NFL 로고를 사용할 수 있다.

매해 연중으로 실시되는 NFL의 개막전과 결승전인 '슈퍼볼(Super Bowl)' 등 주요 행사에 차량을 제공하며 다양한 방법으로 브랜드를 알릴 계획이다.



현대차 미국법인(HMA) 사옥에 걸린 NFL 후원 기념 옥외광고.

데이브 주코브스키 현대차 미국법인 사장은 "미국에서 가장 인기 많은 스포츠 리그인 NFL을 후원하게 돼 기쁘다"며 "미국의 수많은 NFL 팬들에게 현대차 브랜드를 알리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대차는 2008년부터 2014년까지 7년간 NFL 슈퍼볼 경기 내 광고를 실시했다.

지난해 슈퍼볼 때 선보인 신형 제네시스 광고 '아빠의 육감(Dad's Sixth Sense)'편은 USA 투데이 슈퍼볼 광고 조사에서 자동차부문 최고 순위로 발표됐다고 사측은 전했다. /이정필기자 roman@

현대차, 서울대공원에 '車 테마 놀이터' 조성

현대자동차가 쏘나타 출시 30주년을 맞아 경기 과천 서울대공원에 자동차 테마 놀이터를 조성한다.

현대차는 30일 서울 강남 국내영업본부 사옥에서 자동차 테마 놀이터 조성 협약식을 열었다.

행사에는 현대차 국내영업본부장 곽진 부사장과 서울대공원 송천헌 원장이 참석했다.

사측에 따르면 자동차 테마 놀이터는 서울대공원 내 계곡광장 인근 부지에 시설 면적 2045㎡ 규모로 조성돼 서울대공원에 기부될 예정이다.

현대차는 ▲시각장애아도 이용 가능한 미니 쏘나타 자율주행 공간 ▲대형 쏘나타 모형 놀이시설 공간 ▲멸종 위기 동물 이야기를 전해주는 산책로 ▲편안한 휴식을 위한 공간 등의 시설을 포함한 자동차 테마 놀이터를 9월 시민에게 공개할 계획이다.



미니 쏘나타 자율주행 공간은 현대차의 자율주행 기술력을 반영해 시각장애아들도 청각과 촉각을 활용해 어려움 없이 차량을 주행 할 수 있는 첨단 시설이다.

자동차 테마 놀이터 내 모든 시설은 이용객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서울대공원의 생태 공원 조성 계획에 부합하는 친환경적 설계에 따라 조성될 예정이다.

/이정필기자

롯데홈쇼핑 등 7곳 동반성장지수 낙제점

유통가, 전년보다 개선
롯데마트 등 3곳 '우수'
갑질논란 홈쇼핑 최하위



안충영 동반성장위원장이 30일 오전 서울 서초구 더팔래스호텔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14년도 동반성장지수 평가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갑질논란'의 중심에 있던 유통업계의 동반성장지수가 지난해 비해 크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납품업체에서 뒷돈을 받는 등 불공정거래 행위로 구설수에 오른 홈쇼핑 업계는 낮은 점수를 받았다.

30일 동반성장위원회(위원장 안충영, 이하 동반위)는 제35차 동반성장위원회를 열고 '14년도 동반성장지수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동반성장지수는 '대·중소기업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0조의 2에 따라 기업 간 동반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대기업의 동반성장 수준을 평가해 계량화한 지표다. 평가된 점수는 최우수·우수·양호·보통 4개로 등급화 된다. 총 132개 대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도·소매, 백화점, 식품업, 홈쇼핑업으로 분류된 유통분야에서는 롯데마트·GS리테일·롯데푸드·아모레퍼시픽·유한킴벌리·CJ제일제당 등 7곳이 우수 등급을 받았다. 롯데백화점·롯데슈퍼·코리아세븐·현대백화점·홈플러스·BGF리테일·하이트진로·농심·제일모직 등 13곳은 양호 등급. 반면 농협유통·이랜드리테일·롯데홈쇼핑·미니스톱·오뚜기·CJ오쇼핑 등 7곳은 최하위 등급인 보통등급을 받았다.

특히 코리아세븐·BGF리테일·홈플러스·GS리테일 등은 전년 대비 동반성장지수가 한 단계 상승하며 개선되는 양상을 보였다.

세부업종별로는 도·소매업종이 평균 77.6점으로 전년 대비 6.9점 상승했고 식품업은 76.0점으로 전년비 5.2점 상승했다. 백화점업도 79.2점으로 전년 대비 5.1점 올랐다. 반면 홈쇼핑 홈쇼핑업은 71.5점으로 전년에 비해 1.2점 하락했다.

이에 대해 신영선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장은 "지난해 홈쇼핑 업계가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과징금을 받아 감점요인이 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동반위 관계자는 "유통업계가 전반적으로 동반성장지수가 개선된 모습을 보였지만 여전히 유통분야 17개사 중 13개는 판매수수료 결정·변경 기준을 자체를 마련하지 않은 상태"라며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성현기자 minus@metroseoul.co.kr

유통가 "키덜트족 지갑 열어라"

인기 캐릭터 연계 상품 출시


포켓몬 머그 /행남자기 제공

유통업계가 키덜트족 공략에 나섰다.

키덜트란 키드(kid)와 애덜트(adult)의 합성어로 성인들이 어린 시절의 향수를 잊지 못하고 그 경험을 다시 소비하는 현상을 말한다. 한때는 마니아층의 전유물이었지만 최근에는 새로운 소비문화로 부각되면서 이들을 겨냥한 마케팅이 유통 산업 전 분야로 확대되고 있다.

특히 화장품 업계는 캐릭터를 연계한 상품을 잇달아 내놓고 있다. LG생활건강의 VDL은 최근 '카카오프렌즈 컬렉션' 10종을 한정판으로 출시했다. 일상생활에 친숙하게 쓰이는 카카오톡 캐릭터인 '무지' '어피치' '네오' 등을 토대로 디자인을 선보였다.

미샤도 매직쿠션에 베티붑 캐릭터를 적용했다. 유명 애니메이션 캐릭터인 베티붑은 1930년 첫 선을 보인 이후 8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전 세계인들의 사랑을 받아왔다.

색조뿐만 아니라 스킨케어 제품에도 캐릭터가 적용됐다.

CL4는 밋밋한 시트에 동물의 얼굴을 새겨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동물 캐릭터 별로 각각 특별한 성분과 기능을 부여해 개인의 피부 고민에 맞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특징이다.

행남자기가 지난해 4월 출시한 카카오 머그는 한 달 만에 약 4만 5000피스가 팔렸다. 이 같은 소비자 반응에 힘입어 지난 2월에는 카카오 상품 시즌 2를 출시했다. 이달에는 포켓몬 캐릭터 머그와 텀블러를 내놓았다.

글로벌 소비재 기업 빅 프로덕트 코리아도 7월 개봉 예정인 미니언즈와 협업해 다양한 문구 제품을 판매 중이다.

업계 관계자는 "캐릭터 상품들은 친근한 이미지로 제품에 긍정적인 이미지를 만들어 주고 한정판으로 소장가치가 높아 소비자들의 구매 욕구를 상승시킨다"고 말했다.

/김수정기자 ksj0215@


홈플러스, 슈퍼곡물 매출 비중 10% 돌파 귀리·렌즈콩·이집트콩·아마란스 등의 슈퍼곡물의 수요가 나날이 증가하고 있다.30일 홈플러스(대표 도성환)가 올해 상반기 자사 잡곡 카테고리별 매출을 분석한 결과 슈퍼곡물의 매출비중이 10%를 돌파해 3위로 올라섰다.홈플러스에 따르면 슈퍼곡물 매출은 전년 대비 1437%나 신장했다. 특히 귀리는 1077%, 렌즈콩은 7136%나 매출이 늘었다. /홈플러스 제공

한국야쿠르트, 투빗社 지분 30% 인수

게임 등 콘텐츠 마케팅 전개

한국야쿠르트(대표 고정완)가 모바일게임·콘텐츠 개발업체인 '투빗'에 40억원을 투자해 지분 30%를 인수했다고 밝혔다.

투빗은 스토리와 꽈리 등의 전문 캐릭터를 보유하고 다양한 모바일 게임을 개발 중에 있는 콘텐츠 프로바이더 전문기업이다. 게임사 위메이드엔터테인먼트 총괄본부장 출신 김영화 대표가 회사를 이끌고 있다.

한국야쿠르트는 투빗이 내놓은 캐릭터와 모바일게임 등을 이용한 다양한 협업 마케팅을 통해 젊은 세대와 접점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김보라기자 bora6693@

신원, 中유통업체 '진잉그룹'과 합장 SPA 론칭

패션의류브랜드 신원(회장 박성철)은 지난 29일 중국 강소성 난징진잉백화점 본점에서 중국 대형 백화점·부동산 기업인 진잉그룹(골든이글 인터내셔널)과 사업 교류를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MOU로 양사는 합자회사를 설립하고 남성복 SPA 브랜드를 내년 봄·여름(S/S) 시기에 선보이고 신원의 여성복 브랜드를 진잉백화점에 입점시키기로 했다.

신원과 진잉그룹이 만들 예정인 SPA 브랜드는 진잉그룹의 유통망을 기반으로 하는 중저가 남성복 브랜드다.

신원은 제품 기획과 생산을 전담하고 진잉그룹이 유통망 운영과 판매를 맡는다. 신원은 신규 브랜드에 대해 2020년까지 1000개의 매장을 열어 매출 6000억원을 달성한다는 목표다.

박성철 신원 회장은 "중국 내에서 적극적인 유통망 확장과 다양한 마케팅 전략을 통해 신원의 중국 진출 브랜드와 신규 론칭할 남성복 브랜드가 최고의 패션 브랜드로 자리매김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상길기자 sweatsk@

롯데 '맘편한 데이' 지정, 혜택 풍성

롯데그룹(회장 신동빈)은 여름방학 기간인 7·8월 동안 매주 수요일을 가족 배려를 위한 '맘(mom)편한 데이(Day)'로 정하고 계열사별로 다양한 혜택을 제공한다고 30일 밝혔다.

'맘편한'은 롯데가 여성·육아 관련 사회공헌 분야를 강화하기 위해 만든 사회공헌 브랜드다.

롯데월드에서는 자녀를 동반한 워킹맘과 워킹대디를 위해 매주 수요일 오후 자유이용권(After4)을 현재 가격에서 50% 할인 판매한다. 롯데하이마트도 매주 수요일 오후 4시 이후 '맘편한 데이' 쿠폰을 소지하고 매장을 방문하면 최신 가전제품 일부품목에 대해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정은미기자 21cindiun@

일·가정 양립 앞장… ‘여성이 행복한 기업’

수요일은 가족사랑의 날

연중기획 가정이 있는 직장

⑱ 한세실업

HANSAE fashion worldwide



의류업체 한세실업은 전체 직원 중 여성 직원 비율이 절반을 넘게 차지한다. 남성과 차별받지 않고 여성 직원들이 기량을 펼칠 수 있도록 다양한 제도를 만들어 여성 인재 육성에 힘쓰고 있기 때문이다. 사진은 한세실업 연구개발(R&D)센터의 디자이너들이 모여 웃음을 짓고 있다. /한세실업 제공

女직원 비율 전체 절반 넘어 ‘여성 리더의 역량 강화’ 교육 디자인센터·어린이집 개원 등 복지·자기 개발 지원에 총력

저출산과 경력단절여성이 사회적인 이슈로 떠오르는 가운데 의류업체 한세실업(회장 김동녕)이 업계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한세실업의 전체 직원 730명 가운데 여성 직원은 398명이다. 여성이 절반을 넘는 회사다. 패션이 주업인 한세실업이 여성 고객의 감성을 이해하고 니즈를 빨리 파악하기 위해 여성 인재의 비율을 높이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5년간 한세실업이 채용한 대졸 정규직 여성의 비율은 51%에 이른다. 여성임원 비율도 17% 수준이다. 1000명 이상 직원을 보유한 국내 대기업의 평균 여성 임원 비율이 5% 수준인 것에 비하면 눈에 띄게 높은 수치다. 최초 여성 임원은 2006년 입사 한 김애선 상무로 현재 뉴욕 디자인 센터 지사장(법인장)으로 재직 중이다.

한세실업의 여성 인재 육성은 기업 문화에서도 엿볼 수 있다. 남성과 차별받지 않고 여성 직원이 기량을 펼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사내 교육 프로그램 중 하나인 ‘여성 리더의 역량 강화’가 대표적이다. 이 프로그램은 여성 임직원이 강연자로 나서 경험담을 바탕으로 진행해 직원들의 공감을 얻으며 수년째 이어오고 있다.

또 2000년대 초 디자인 역량 강화를 위해 업계 최초로 연구개발(R&D)본부를 설립하고 2008년에는 미국 뉴욕 맨해튼 브로드웨이에 디자인센터를 세우는 등 디자인경영 방침도 여성직원 비율을 끌어올리는 데 한몫하고 있다. 자체 개발한 원단과 디자인을 제안하는 연구개발 본부는 크게 디자이너팀과 원단 개발팀으로 나뉜다. 이 분야는 여성 전문 인력이 많아 자연스럽게 여성 비율이 높아졌다는 게 회사 측 설명이다.

올 하반기에는 서울 여의도 본사에 직원 자녀들을 위한 어린이집을 개원할 예정이다. 절반이 넘는 여직원 비율과 워킹맘을 위해 차별화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다. 업무 강도가 높고 해외 출장이 잦은 업종 특성을 고려해 여성 직원들의 자녀를 우선순위로 받기로 했다.

한세실업 관계자는 “대체로 의류제조수출은 업무 강도가 높고 해외 출장으로 여성들이 살아남기 힘들다고 알려져 있지만 한세실업은 과거에도 여성 직원 비율이 높은 편이었다”며 “여성과 남성 어느 한쪽에 치우치기 보다는 직원 모두가 존중받고 소통에 힘써왔기 때문에 여성 비율이 타기업에 비해 높은 것 같다”고 설명했다.

한편 1982년 창립된 한세실업은 주문자상표부착생산(OEM)과 제조자개발생산(ODM)방식으로 연간 3억장이 넘는 의류를 제조·수출하고 있다. 미국 대형마트인 월마트·타깃을 비롯해 나이키·갭·아메리칸이글·에버크롬비&피치·자라·유니클로·H&M 등에 납품하고 있다. 현재 베트남·니콰라과·과테말라·인도네시아·중국 등 5개국에 해외 법인을 운영 하고 있다. 한세실업은 지난해 매출 1조 3143만억원, 영업이익 929억원을 기록했다.

/김보라기자 bora6693@metroseoul.co.kr

한세실업 여성인재 육성 제도

제도	세부 내용
여성 리더의 역량 강화	사내 교육 프로그램 중 하나로 여성 임직원이 강연자로 나서 교육 진행
디자인센터 건립	디자인 역량 강화 업계 최초로 연구개발본부 도입
본사 어린이집	워킹맘 위해 올 하반기 여의도 본사에 개설

공동기획 : 여성가족부 metro

“사람이 곧 재산”… 인재경영 충실

해외 근무 기회·연봉도 업계 톱

의류 제조사인 한세실업은 ‘3무(無)기업’으로 주목받고 있다. 창립 이후 한 번도 역성장·적자·감원을 경험한 적이 없다. 이런 이색적인 기록을 갖고 있는 것은 전통적 굴뚝산업인 패션업종에 드문 사례로 평가된다. 이 같은 배경으로 ‘사람이 곧 재산’이라는 김동녕 회장의 ‘인재경영’에서 비롯됐다는 평이다.

한세실업은 신입사원 입사 교육에서부터 해외연수를 실시한다. 취업 후 1년이 지나면 해외 현지법인에서 1년6개월~2년 간 근무할 수 있는 자격을 준다. 3년차 이상 직원은 미주 연수 프로그램에 참가할 수 있다.

이처럼 모든 직원이 해외법인에 근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은 관리자로서 책임감과 관리 역량을 기르는 것은 물론 각국의 문화까지 체험하게 한다는 취지다. 생산 현장의 업무를 총체적으로 체득하고 1000명이 넘는 근로자들을 관리해 봄으로써 책임감과 글로벌 리더로서의 역량을 키운다.

연봉도 동종업계 톱에 속한다. 좋은 인재가 몰리고 성장의 발판을 만들 수 있다는 게 김 회장의 지론이기 때문이다.

최근 모집한 대졸 신입사원 공채 초봉은 군필와 정규직 기준 약 4350만원이다. 영업이익에 따른 인센티브는 물론 차량유지비, 식대 등 각종 복지수당까지 포함하면 5대 그룹 못지 않은 수준이다.

한세실업은 조직의 자율성과 창조성을 위해 파격적인 ‘팀장제’도 도입했다. 조직 권한을 아래로 내려 팀장이 모든 권한을 갖고 원자재를 구매해 제품을 만들어 납품까지 하도록 했다.

회사 관계자는 “젊은 팀장급이 80% 이상의 의사결정권을 갖고 있다”며 “회사 규모가 커지고 있지만 해외 바이어들의 요구에 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것은 이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소통을 위한 조깅 미팅과 모닝 데이트도 열린다. 조깅 미팅은 매주 화·수·목요일마다 아침 7시 본사 앞 여의도 공원에서 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팀별로 열린다. 모닝 데이트는 임직원이 함께 만나 소통하는 제도다. 외국인 사원·신입 사원·팀장 등 그룹으로 나눠 김동녕 회장 등 임원들과 미팅을 갖는 방식이다. 직원들이 맡은 업무를 자유롭게 이야기하고 서로 마음을 열고 생각을 함께 나누며 비전을 공유한다.

/김보라기자 bora6693@



한세실업 신입사원들이 만든 나만의 옷. /한세실업 제공

비행기 탔더니 치아 찌릿… 왜?

'항공성 치통' 원인·예방팁

본격적인 휴가철이 시작됐다. 특히 올해는 메르스 공포가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음에도 상당수 직장인들이 여름휴가 계획을 잡고 있는 것으로 조사돼 눈길을 끌고 있다.

국내든 해외든 비행기 여행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흔히 놓치는 실수가 바로 치아관리다. 충치나 잇몸 질환이 있을 경우 기압 상승으로 인한 갑작스러운 치통을 겪을 수 있다. 바로 항공성 치통이다.


신촌다인치과병원 임흥빈 병원장은 "사랑니 치료는 한 달 정도 여유를 두고 치료 받는게 좋다"고 조언했다.

◆ 항공성 치통, 비행기 상승 시 발생하는 기압변화가 주 원인

비행기를 탔을 때 치통을 겪는 이유는 비행기가 상승할 때 오는 기압변화 때문이다. 비행기가 상승하면 기내 기압이 갑작스럽게 낮아지면서 체내의 압력은 상대적으로 높아진다. 이때 잇몸의 예민한 근육도 함께 팽창되면서 치통이 발생하는 것이다.

항공성 치통은 충치를 갖고 있는 사람에게 흔히 나타난다. 치아 속 신경이나 신경 가까이에 염증이 생긴 치수염이 있다면 기내의 민감한 기압 변화가 잇몸을 팽창시켜 바늘로 찌르는 듯한 날카로운 통증을 유발한다. 치수염은 대부분 충치가 깊거나 치아에 금이 간 경우에 생긴다. 비행기를 타기 전 치과 검사를 통해 감염된 치수를 제거하고 그 부분을 적당한 재료로 메우는 신경치료를 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신경치료를 하는 도중에 비행기를 탔을 때 통증을 크게 느낄 수 있다. 비행기를 타기 전에 신경치료를 완전히 끝내는 것이 좋다.

한편 평소 별다른 이상이 없던 사랑니가 압력이 높아지면서 통증이 생길 수도 있다. 비행기에서 내린 뒤 휴가지에서 갑작스럽게 통증을

기압변화에 잇몸 근육 팽창
충치 없어도 사랑니 등 통증

칫솔질은 되레 손상 유발
치실·구강청결제 사용 도움
미리 스케이링 받는 것 효과

호소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사랑니는 반드시 치료를 하고 여행을 떠나는 것이 좋다.

신촌다인치과병원 임흥빈 병원장은 "x-ray 촬영으로 정확한 위치를 파악한 뒤 부분 마취를 하고 사랑니를 뽑는데 치료 후에도 일정기간 통증이 계속될 수 있어 가능한 한 달 정도 여유를 두고 치료를 받는 게 좋다"고 조언했다.

휴가 전 스케일링을 받는 것도 필요하다. 몸이 붓는 것처럼 압력으로 인해 잇몸이 부으면 잇몸 속에 쌓여있던 치석을 압박해 상처를 입을 수 있다.

또 평소에는 통증을 전혀 느끼지 못할 정도의 미미한 잇몸질환도 비행기 안에서는 신경이 예민해져 고통스러운 통증이 생길 수 있어 휴가 전 치과 치료를 꼭 받아야 한다.

◆ 진통제·구강청결제 꼭 챙겨야… 비행기 내 칫솔질 금물

해외여행 시 기본적인 약품을 꼭 챙겨야 한다. 특히 진통제는 트렁크에 넣지 말고 본인이 소지해야 갑작스런 상황에 대처할 수 있다.

대부분의 항공사가 기내에서 칫솔을 제공하고 있어 적지 않은 사람들이 무심결에 칫솔질을 하는데 충치나 잇몸질환이 있다면 기내에서 가급적 양치를 삼가야 한다. 높은 고도로 잇속과 잇몸 혈관이 확장돼 있는 상태에서 잇몸을 압박하는 칫솔질을 할 경우 잇몸 손상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이다.

비행기를 타기 전 치과치료를 받지 못했다면 기내에서는 칫솔질보다는 깨끗한 물수건으로 부드럽게 이를 닦거나 구강청결제 등으로 입안을 헹구는 것이 자극을 줄일 수 있다. 또한 이에 음식물이 끼였다면 이쑤시개를 사용하기 보다는 치실을 사용해 제거하는 것이 좋다.

임 원장은 "항공성 치통을 겪었다는 것은 이미 치아와 잇몸 내부에 치과적 질환이나 문제가 생겼다는 신호이므로 여행 후 즉시 치과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도움말 신촌다인치과병원 임흥빈 병원장

/최치선기자 chisunti@metroseoul.co.kr

쉐라톤 인천, 더위 극복 보양식 선봬

중국식 냉면·전복찜 등 3일부터 내달 23일까지

쉐라톤 인천 호텔의 중식당 유에(YUE)가 여름을 맞아 시원한 냉면과 함께 활력을 주는 영양 가득한 보양 요리를 3일부터 8월 23일까지 선보인다.

신선한 전복·해삼·새우가 고명으로 올라간 시원한 중국식 냉면이 제공된다. 옛날식 고법 불도장, 전복찜과 랍스터, 흑 후추와 흑 마늘 소스를 곁들인 양갈비, 통 전복과



자연송이 죽순 등 보양식 세트 메뉴를 내놓는다.

점심 세트는 6만8000원이며 저녁 세트는 8만5000원부터다. 단품 메뉴는 1만8000원부터다.

/김수정기자 ksj0215@

'兒 환경보건 출생 코호트' 문 연다

이화의대 지원센터 개소

이화여자대학교 의대는 '어린이 환경보건 출생 코호트 지원 센터' 지난 29일 개소했다고 밝혔다. 의화여대 의대에 따르면 센터는 이화여대 의학관 A동 1층에서 현판식을 개최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지난 4월 하은희 교수팀(센터장)은 환경부로부터 '어린이 환경보건 출생 코호트 지원' 사업에 선정됐다. 하 교수팀은 전국 주요 13개 병원에 설치된 환경보건센터를 통해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산모 10만 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와 생체·환경 시료 조사를 진행한다. 이 조사를 바탕으로 사회적 빅데이터와 연계해 임신과 출산, 어린이의 성장 발육에 관련된 환경 요인 39가지의 인과관


왼쪽 두번째부터 이순남 이화의료원장, 이호중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과장, 최경희 국립환경과학원 부장, 하은희 센터장, 김경효 이화여대 의대학장.

계 가설을 집중 규명할 계획이다.

이날 현판식에는 하은희 센터장, 이순남 이화여자대학교 의무부총장 겸 의료원장, 김경효 이화여대 의과대학장, 유권 이대목동병원 병원장 등 의료원 관계자들과 이호중 환경부 환경보건정책 과장과 최경희 국립환경과학원 부장 등 환경부와 국립환경과학원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최치선기자

"건국대 의료진 응원합니다"

이사장·총장·교직원 등 응원카드·메시지 전달

건국대학교(총장 송희영) 구성원들이 메르스 확산방지와 예방을 위해 사투를 벌이고 있는 건국대학교 병원 의료진을 응원하는 응원 캠페인이 이어지고 있다.

앞서 건국대병원은 지난 6월 메르스 양성 판정을 받은 환자가 발생해 23일부터 14일간 하니적으로 병원의 진료기능을 축소 운영해 입원환자의 응급 수술을 제외한 외래진료와 신규입원, 면회를 중단하고 있다.

이에 학교법인 건국대학교 산하 기관과 지역 주민들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한 의료진들을 응원하는 포스터 게시 ▲건국대병원 구성원을 위한 응원 현수막을 통해 응원하고 있다.

이어 건국대병원에는 '지금, 당신은 혼자가 아니라고



건국대학교 구성원들이 메르스 확산방지와 예방을 위해 사투를 벌이고 있는 건국대병원 의료진을 응원하는 응원 캠페인이 이어지고 있다. /건국대 제공

전해주세요'라는 슬로건 아래 김경희 학교법인 건국대 이사장과 송희영 총장, 교직원들은 병원 의료진과 교직원들에게 응원카드와 메시지들을 전달했다.

김 이사장은 "의료인으로서의 투철한 사명감 하나로 병원과 국민을 살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며 "건국대 병원이 메르스 사태를 슬기롭게 극복해 건강과 복지를 북돋아주는 진정한 희망의 샘터가 되리라 확신한다"고 말했다.

/복현명기자 hmbok@

치지직~ 상처엔 스프레이로 살균 소독

한국먼디파마
베타딘 드라이파우더스프레이

한국먼디파마(대표이사 이종호)는 최근 상처에 뿌리는 살균소독제 '베타딘 드라이파우더스프레이'(사진)를 출시했다. '베타딘 드라이파우더스프레이'는 광범위한 살균력을 가진 포비돈 요오드를 주성분으로 한 스프레이 타입의 상처소독제로 약국에서 구입 가능한 일반의약품이다.

특히 찰과상과 기타 가벼운 상처뿐 아니라 화상, 베인 상처 및 궤양 등에 다양하게 사용 가능한 살균소독제로 사용 편의성을 더욱 높였다.

스프레이 타입으로 넓은 부위 상



처에 간편하게 도포하여 소독할 수 있다. 파우더형태로 분사되므로 기존의 액체형 제품과 달리 흘러내리지 않아 사용이 편리하다.

또한 상처 부위에 손을 대지 않고 적용이 가능하므로 손으로 인한 오염 가능성을 줄일 수 있다. 특히 주성분인 포비돈 요오드의 광범위한 살균력으로 상처 부위 감염을 일으키는 박테리아, 바이러스, 곰팡이균을 제거할 수 있다.

평소 상처가 생겼을 때에는 방치하지말고 살균소독을 해주는 것이 중요하다.

상처 발생 시 적절한 관리가 이뤄지지 않으면 상처에 미생물이 침입할 수 있으며, 미생물이 과도하게 증식할 경우 세균 감염이 발생해 상처 회복을 더디게 한다.

'베타딘 드라이파우더스프레이'는 사용 전 잘 흔들어준 후 치료 부위에서 15~20㎝ 정도 떨어뜨려 하루 수 회 뿌려주면 된다. 분사시 얇은 가루막이 형성되며 필요한 경우 붕대로 덮는다.

세계적인 항균 브랜드 베타딘의 주성분인 포비돈 요오드는 여러 연구를 통해 광범위한 항바이러스 효과가 입증된 바 있다. /복현명기자

star bag



3개 타이틀곡으로 컴백

걸그룹 **소녀시대**가 3개의 타이틀곡으로 화려하게 컴백한다. 선행 싱글 '파티'에 이어 더블 타이틀곡 '라이온 하트(Lion Heart)'와 '유 싱크(You Think)'를 포함한 정규 앨범을 순차적으로 발표할 예정이다. 오는 7일 발표하는 '파티'는 여름과 잘 어울리는 댄스 곡으로 태국 코사무이에서 뮤직비디오를 촬영했다.

미스틱엔터 프로듀서로



가수 **조규찬**이 미스틱엔터테인먼트의 프로듀서로 합류한다. 미스틱엔터테인먼트는 지난달 30일 "음악적 재능과 실력이 뛰어난 뮤지션 조규찬이 회사 내 프로듀서와 보컬 디렉터로 활약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조규찬은 최근 미스틱89 소속 가수 장재인의 미니앨범 '리퀴드' 수록곡에 코러스로 참여했다.

단편영화로 감독 데뷔



배우 **남궁민**이 단편영화 '라이트 마이 파이어(Light My Fire)'로 영화감독으로 데뷔한다고 소속사 935엔터테인먼트가 지난달 30일 밝혔다. '라이트 마이 파이어'는 남궁민이 각본과 캐스팅까지 직접 맡아 연출하는 첫 번째 작품이다. 변사체로 발견된 미스터리한 살인사건을 소재로 한 스릴러 작품이다.

트로트 가수로 변신



트로트 가수로 변신한 **성은**이 새 싱글 '해줘요'를 지난달 30일 정오 발매했다. 작곡가 신사동 호랭이와 4번타자가 참여한 곡이다. 2000년대 초반 유행한 테크노 장르의 향수를 그대로 가지고 온 여름 맞춤형 댄스 트로트 곡이다. 사랑하는 남자를 위해 무엇이든 해줄 수 있다는 여자의 진심을 가사에 담았다.

"캐릭터보다 한 여자 이해하려 노력"

뮤지컬 '엘리자벳' **조정은**

수줍음 많고 얌전하게 보이지만 무대에만 서면 카리스마를 발산하는 뮤지컬계 디바가 있다. 현재 블루스퀘어 삼성전자홀에서 공연되고 있는 뮤지컬 '엘리자벳'의 히어로 조정은(36)이다. 옥주현과 함께 타이틀롤을 맡은 그는 그동안 뮤지컬 '지킬 앤 하이드' '레미제라블' '드라큘라' 등 출연 작품마다 팔색조 매력을 발산하며 관객을 사로잡아 왔다.



조정은은 어린시절부터 배우를 꿈꿨다. 뮤지컬 배우가 되기로 결심한 것은 계원예고에서 뮤지컬을 경험하면서 부터다. 동국대 연극영화과를 졸업한 뒤 2002년 뮤지컬 '태풍'을 시작으로 '로미오와 줄리엣'(2002),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2003), '미녀와 야수'(2004) 등 잇따라 대형 작품에 출연하며 차곡차곡 필모그래피를 쌓아갔다.

하지만 그는 잘나가던 2007년 돌연 영국으로 유학을 떠난다. 무엇인가에 쫓기는 듯한 기분이 들었고, 뮤지컬 배우로서 배워야 할 것들이 많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이후 영국의 대표적인 예술학교인 스코틀랜드 왕립예술원을 졸업하고 한국으로 돌아와 뮤지컬 '피맛골 연가'에서 지고지순한 여인 홍랑 역을 멋지게 소화하며 제27회 한국 뮤지컬 대상 여우주연상을 수상한다.

특유의 단아하고 기품 있는 분위기와 목소리로 팬에게 '선녀'로 불리고 있다. 이번에는 뮤지컬 여배우라면 누구나 꿈꾸는 '엘리자벳'을 맡아 또 한번 자신의 한계에 도전중이다.

연기 스펙트럼 넓은 캐릭터
분석보다 이해·공감하도록
옥주현과 비교… 부담 없어



"오래 전부터 '엘리자벳'을 해보자는 제안이 많았어요. 그때마다 '아직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었죠. 연기 스펙트럼이 워낙 넓은 캐릭터거든요. 그런데 지난해 뮤지컬 '드라큘라'에서 미나 역을 소화한 뒤 연기가 정말 재미있다는 것을 느꼈어요. 자신감도 생겼구요."

뮤지컬 '엘리자벳'은 18~19세기 유럽 최고의 명문가였던 합스부르크 왕가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 어린시절 활기 넘치고 자유분방한 성격의 엘리자벳은 나무에 오르다 떨어지면서 '죽음'과 처음 마주하게 된다. 엘리자벳의 아름다움에 반한 죽음은 그녀를 살려두고, 마치 그림자처럼 엘리자벳의 주위를 맴돈다.

오스트리아의 황제 프란츠 요제프와 결혼한 엘리자벳은 엄격한 황실 생활에 지쳐가고, 자신을 옭아매려는 시어머니 소피와 갈등한다. 그런 그녀를 어둠 속에서 지켜보던 죽음은 자신만이 진정한 자유를 줄 수 있다며 끊임없이 유혹한다.

"엘리자벳에 출연하기로 결심한 뒤 일부러 캐릭터 분석을 하지 않았어요. 다만 엘리자벳이 왜 그런 결정을 했고, 죽음과 만나면서 왜 그렇게 했는지 한 여자의 입장에서 이해하고 공감하려고 노력했죠."

엘리자벳과 가장 많은 호흡을 맞추는 죽음 역은 신성록·최동욱·전동석이 번갈아 연기한다.

"성록 씨는 서 있기만 해도 멋있고, 동욱 씨는 감각적이면서 어린왕자 같아요. 동석 씨는 만화에서 튀어나온 것 같은 캐릭터지만 파워풀하죠. 이 세명 중에서 제 연인을 고르라면 솔직히 말해 없어요."(웃음)

뮤지컬 '엘리자벳'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게 화려한 넘버들이다. 인물간의 관계와 캐릭터의 갈등을 드라마틱한 선율로 담은 '마지막 춤' '나는 나만의 것' '키치' 등이 각종 음반 차트를 점령하기도 했다.

"엘리자벳에 출연하기 전에는 '행복은 너무도 멀리에'를 가장 좋아했죠. 2막 후반부에 아들 루돌프가 아끼던 배를 호수에 띄워 보내면서 엘리자벳의 비극적인 운명을 효과적으로 표현한 노래에요. 그런데 공연을 하면서 '당신처럼'이 더 좋아졌어요. 엘리자벳의 심리를 잘 담았거든요."

옥주현과 비교되는 것이 부담스럽지 않냐는 질문에 그는 "옥주현 만의 엘리자벳이 있고, 저 만의 엘리자벳이 있기 때문에 부담스럽지 않다"며 "옥주현은 정말 박수를 받을 만하다. 배울 점이 많은 배우"라고 칭찬했다. 뮤지컬 '엘리자벳'의 공연은 9월 6일까지 계속된다. 문의: 1577-6478

/김민준기자 mjkim@metroseoul.co.kr

사진/손진영기자 son@

선장 없던 서울시향, 새대표 임명

최흥식 전 하나금융지주… 조직 안정화 특명



서울시는 공석중인 재단법인 서울시립교향악단(이하 서울시향) 대표이사에 최흥식(62·사진) 전 하나금융지주 사장을 7월 1일자로 임명한다고 30일 밝혔다.

신임 최흥식 대표이사는 연세대학교·대학원에서 경영학을 전공하고 프랑스 릴 제1대학교 및 파리 도핀 대학교에서 경영학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한국금융연구원 원장, 하나금융연구소 대표이사, 하나금융지주 사장을 역임한 경영전문가이다.

하나금융지주는 2006년부터 서울시향을 지속적으로 후원해 온 가장 대표적인 협찬사로, 최흥식 대표이사는 사장 재임시절 시향과 직접 후원계약을 체결하기도 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문화예술의 중요성을 깊이 이해하고 있고, 금융기관 출신으로 안정적인 재원 확보에 기여할 수 있는 점이 높이 평가됐다"며 "신임 최 대표는 평소 클래식 음악에 대한 조예도 깊어 서울시향을 책임 있게 이끌어갈 적임자"라고 설명했다.

신임 최 대표는 서울시향을 최대한 빨리 파악해 조직 안정화에 힘쓸 계획이다. 하지만 박현정 전 서울시향 대표의 명예훼손 사건과 관련해 서울시향의 한 직원이 자살을 시도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지는 등 서울시향의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어 조직 정상화가 쉽지만은 않을 전망이다.

/김민준기자



배신, 야망, 그리고 체스
6/11 2PM LAST TICKET OPEN
THE MUSICAL 체스
CHESS
Book by Richard Nelson
Lyrics by Tim Rice
Music by Bjorn Ulvaeus and Benny Andersson
"CHESS" is presented by special arrangement with SAMUEL FRENCH, INC.
in association with BROADWAY ASIA COMPANY, LLC
2015.6.19 ~ 7.19 세종문화회관 대극장
신성우 • 김장섭 • 김법래 • 박선우 • 이건명 • 홍경수 • 박선효 • 안시하 • 김금나 • 이정화 • 조권 • Key • 신우(B1A4) • 켄(빅스)
|프로듀서|김선미 |연출|왕용범 |음악감독|이성준 |안무|서병구 |협력연출|유병은 |협력안무|홍유선 |조명디자인|민경수 |무대디자인|서숙진 |음향디자인|권도경 |영상디자인|송승규 |의상디자인|한정임 |분장디자인|양희선 |소품디자인|조윤형 |기술감독|이유원 |제작감독|김완식
|제작|(주)엠뮤지컬아트 |제작지원|kibo 기술보증기금 |협찬|KDB산업은행 |홍보|SHOWHOLIC |예매|인터파크 (1544-1555) 티켓 (1566-1369) |문의|(주)엠뮤지컬아트 (02-764-7857~9) ENTI (1644-5210)

심폐소생술로 가까스로 살려낸 시리즈

film review

/장병호기자 solanin@metroseoul.co.kr

추억·향수 충분히 자극 시리즈 무게감은 희미

화려한 액션·스케일 압도 가볍게 즐길 오락영화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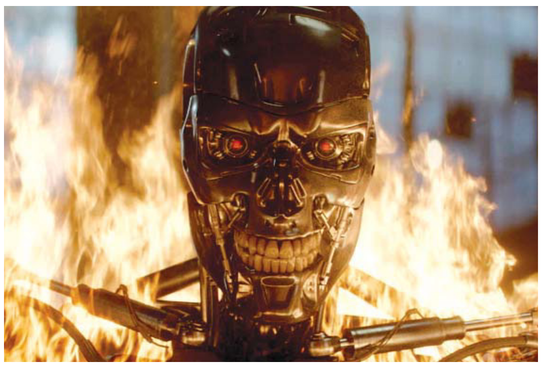
■ 터미네이터 제니시스

'터미네이터'는 회생 불가능으로 여겨졌던 시리즈다. 전편보다 나은 속편은 없다는 속설을 깨트린 2편에서 끝났어야 했다. 그럼에도 할리우드는 '터미네이터' 시리즈를 포기할 생각이 없었다. 때마침 인기 시리즈를 새로운 설정으로 다시 만드는 리부트(reboot) 열풍이 불고 있었다. 그렇게 6년 만에 시리즈 최신작인 '터미네이터 제니시스'가 우리 앞에 도착했다. 다 죽어가던 시리즈를 심폐소생술로 다시 살려내겠다는 할리우드의 강한 의지의 결과물이다.

영화의 전반부는 1편과 2편의 오마주다. 인간 저항군의 리더인 존 코너의 엄마 사라 코너(에밀리아 클라크)를 죽이기 위해 터미네이터 T-800(아놀드 슈왈제네거)이 미래에서 1984년으로 온다. 이를 막기 위해 카일 리스(제이 코트니)가 과거로 따라온다. 여기까지는 1편의 익숙한 장면들이 스크린 위에 펼쳐진다. 이어지는 2편의 악역 T-1000(이병헌)의 등장은 갑작스럽기는 해도 추억과 향수를 충분히 자극한다.

그러나 진짜 이야기는 2017년의 샌프란시스코로 무대를 옮긴 뒤부터다. 새롭게 등장하는 터미네이터 T-3000(제이슨 클락)의 무시무시한 위용이 보는 이의 이목을 끈다. 그리고 지루할 겨를 없이 화려한 액션이 이어진다. 기술의 발전 덕분에 시각적인 볼거리는 더욱 다양하고 풍성해졌다. 그런데 이상하게 허전하다. '터미네이터' 시리즈가 갖고 있던 주제의 무게감이 희미해졌기 때문이다.





'터미네이터 제니시스'는 전작들이 다른 주제를 새롭게 변주하기보다 답습하는데 그친다. 인간과 기계의 관계를 다루는 태도도 진일보하지 못한다. 실체가 없는 네트워크의 위협 앞에서 물리적으로 저항하는 주인공들의 모습은 시대착오적인 느낌이 든다. 영화의 부족한 개연성을 속편의 암시로 해결하는 것처럼 지나치게 상업적인 선택도 영화 곳곳에 있다.

'할리우드 오락영화로서의 리부트'라는 목적만큼은 충분히 이룬 영화다. 기존 시리즈를 보지 못한 관객이라면 가볍게 즐길 수 있다. 하지만 팬이라면 두 손 들고 반길 수도, 그렇다고 마냥 외면할 수도 없는 애증의 작품이다. 15세 이상 관람가. 7월 2일 개봉.

TV 하이라이트



인생역전 주인공들 초대

◆ MBC '황금어장-라디오스타'

오후 11시 10분

무공해 순박남부터 국민 연하남까지 완벽 소화한 윤박, '오로라공주'로 여주인공으로 등극하더니 열애설로 다시 핫 이슈가 된 전소민, 혹독한 예능 훈련에서 오뚝이처럼 다시 살아난 슬리피, '양꼬치엔 칭따오' 하나로 인생역전에 성공한 18년차 베테랑배우 정상훈이 출연한다. 개그맨보다 더 웃긴 뮤지컬 배우 정상훈은 빠진 치아를 찾기 위해 뮤지컬 무대를 누빈 사연을 공개한다.

◆ JTBC '유자식 상팔자'

오후 9시 40분

'아빠, 삼시세끼를 부탁해' 특집 마지막 이야기. 맛조개 캐는 노하우 습득부터 밀물과의 사투까지 벌인 끝에 우현과 홍서범은 진도 갯벌을 접수한다.



◆ tvN '고교10대천왕'

오후 11시

어른들이 알아챌 수 없는 은밀한 수법부터 극악무도한 악행까지 서슴지 않는 학교 폭력의 현주소. 2015년 고등학교에서 벌어지는 가장 최악의 수법이 공개된다.



◆ SBS '내 마음의 크레파스'

오후 5시 30분

전복의 고장, 아름다운 섬마을 노화도에 특별한 쌍둥이 남매가 살고 있다. 하루도 바람 잘 날 없이 시끌벅적한 쌍둥이네 여름 이야기가 그려진다. /정리=하희철기자 bbuheng@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1일 (수)

지상파	KBS1	KBS2	MBC	SBS	EBS1	EBS2
18시	00 6시 내고향 55 시청자칼럼 우리 사는 세상	00 KBS 글로벌 24 30 2TV 저녁 생생정보	10 생방송 오늘 저녁	00 생방송 투데이	00 톡! 톡! 보니 하니 1 (2873회) 05 코코몽 3 25 꼬마 철학자 휴고 45 동생이랑 나랑 (17회)	00 하늘 놀이터 (재) 25 Real Fun World (재) 30 출동! 슈퍼윙스(영어·한국어) (재) 50 Real Fun World2 (재) 55 시계마을 티키톡!(영어·한국어) (재)
19시	00 KBS 뉴스 7 30 농촌드라마 오! 할매 스페셜	50 오늘부터 사랑해 (63회)	15 위대한 조강지처 (13회) 55 MBC 뉴스데스크	20 돌아온 황금복 (17회)	00 곤 30 EBS 뉴스 50 사선에서	25 내 친구 아서(영어) (재) 35 Real Fun World3 (재) 40 내 친구 아서(한국어) (재) 50 두키 탐험대(영어)
20시	25 가족을 지켜라 (38회)	30 반려 동물 극장 단짝 55 글로벌 남편백서 내편, 남편 (2회)	55 딱 너 같은 딸 (33회)	00 SBS 8 뉴스 55 영재발굴단	40 다큐 오늘 50 세계 테마 기행	00 Real Fun World4 (재) 10 두키 탐험대(한국어) 20 스쿨랜드 (재) 30 공부의 왕도 (재)
21시	00 KBS 뉴스 9		30 리얼스토리 눈		30 한국기행 50 EBS 다큐 프라임	00 다큐 오늘 10 EBS 스타 강사 특강
22시	00 세상 끝의 집-마음의 언덕 55 국민대합창 우리가	00 복면검사 (13회)	00 맨도롱 또똣 (15회)	00 가면 (11회)	45 극한 직업	00 영화로 배우는 영어 <오만과 편견>
23시	00 KBS 뉴스라인 40 문화빅뱅 더 콘서트	10 추적 60분	15 황금어장 라디오스타	15 한밤의 TV연예	35 세계견문록 아틀라스	
24시	50 동행 (재)	10 스포츠 하이라이트 35 특선다큐	40 MBC 뉴스 24	35 나이트라인	05 지식채널e (재) 10 한국영화특선 <깃발 없는 기수>	30 선생님 선생님 우리 선생님 (재)
케이블	**JTBC**	**tvN**	**올리브TV**	**내셔널지오그래픽**	**채널CGV**	**스포츠**
18시	30 비정상회담 (52회) (재)	40 명단공개 (69회) (재)	20 오늘 뭐 먹지? (6회) 50 노 오븐 디저트 (3회)		40 나도 영화감독이다 (3회)	 ◆ 프로야구 (18:30) 한화 vs KIA(SPOTV+) 롯데 vs NC(MBC SPORTS+) LG vs 두산(SKY SPORTS) KT vs SK(SBS SPORTS) 삼성 vs 넥센(KBS N SPORTS)
19시	40 연금복권 520 (209회) 55 JTBC 뉴스룸	40 고성국의 빨간 의자 (54회)	20 현장토크쇼 TAXI (383회)	00 겁을 상실한 동물 TOP 10		
20시	50 JTBC 뉴스룸	40 강용석의 고소한 19 (139회)	30 올리브쇼 2015 (7회)	00 <극한직업>동해 가자미 잡이	00 프라이버시	
21시	40 유자식상팔자 (108회)	40 수요미식회 (23회)	30 오늘 뭐 먹지? (23·48회)	00 세렝게티의 사자들		
22시			30 2015 테이스티로드	00 항공사고 수사대: 에어 크래쉬 (5회)	00 들개들	
23시	00 냉장고를 부탁해 최고의 빅 매치 (1회)	00 고교10대천왕 (9회)	30 맵스 (1회)	00 <전쟁의 대가들> 싱가폴전투: 퍼시발 vs 야마시타		
24시	30 비정상회담 스페셜 (52회)	20 강용석의 고소한 19 (139회) (재)		00 서바이벌 알래스카3 (11회)	00 21	

슈퍼 땅콩? 이제는 '키다리' 골퍼 시대

국내여자프로골프 랭킹 170cm 이상 상위권 점령
코스 길어져 장타자 강세




전인지와 이정민.

한때 여자골프를 호령하던 김미현, 신지애 등은 150cm대 단신이다. 작은 체구에서 뿜어져 나오는 파괴력에 골프팬들은 이들을 '슈퍼땅콩'이라고 불렀다. 하지만 최근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 무대는 장신 선수들의 경연장이 됐다.

한국여자프로골퍼 상금랭킹 1~4위에 올라 있는 전인지(21·하이트진로), 이정민(23·비씨카드), 고진영(20·넵스), 박성현(22·넵스)은 모두 키가 170cm 이상이다. 전인지가 175cm로 가장 크고 이정민은 172cm, 고진영은 170cm, 박성현은 171cm다. 이들 4명이 올해 거둬들인 우승컵은 모두 8개다.

한차례 우승과 함께 상금랭킹 6위를 달리는 김민선(20·CJ오쇼핑)도 175cm의 키다리 선수다. 상금랭킹 10위 이내 선수 가운데 5명이 170cm 이상 장신이다.

장신 선수들의 득세는 지난해부터 두드러졌다. 키 171cm의 허윤경(25·SBI저축은행)이 상금랭킹 2위에 올랐고, 이정민·전인지·백규정(20·CJ오쇼핑)이 나란히 3~5위에 이름을 올렸다. '톱10' 5명 가운데 상금왕 김효주(20·롯데)만 빼고 4명이 170cm 이상 장신 선수였다.

장신 선수의 득세는 비거리가 받쳐주지 않으면 살아남지 못하는 골프 경기 특성의 변화가 반영된 결과다. 최근 골프장 코스가 점점 길어지면서 장타를 치는데 유리한 키 큰 선수들이 득세하는 결과로 이어졌다.

드라이브샷 평균 비거리에서 전인지는 4위를 달리고 있고 이정민(3위), 박성현(6위), 김민선(1위) 등 상금 순위 10위 이내 장신 선수 4명이 비거리 6위에 자리 잡았다.

미국프로골프(PGA)투어 역시 키가 180cm는 돼야 행세하는 시대가 이미 오래전에 열렸다.

타이거 우즈(185cm), 어니 엘스(191cm), 비제이 싱(188cm), 필 미켈슨(191cm) 등 당대 최고 선수들은 다들 장신이었다.

PGA투어 상금 1위 조던 스피스(186cm), 2위 더스틴 존슨(193cm), 4위 지미 워커(188cm), 5위 버바 왓슨(190cm), 6위 브랜트 스니데커(185cm), 7위 J.B 홈스(180cm), 8위 저스틴 로즈(189cm), 9위 찰리 호프먼(183cm), 그리고 10위 마쓰야마 히데키(180cm) 등 9명이 180cm 이상 장신이다.

키가 172cm인 최경주(45·SK텔레콤)는 "키가 10cm만 더 컸으면 하고 늘 바랐다"면서 "심지어 한동안 키가 크는 꿈을 매일 꾸기도 했다"고 말한 적이 있다.

미국여자프로골프(LPGA)투어에서는 장신 선수들의 위력이 PGA 투어만큼은 아니다. 상금랭킹 1위 박인비(27·KB금융)는 여자치고는 꽤 큰 168cm지만 장신 축에는 끼지 못한다. 상금랭킹 2~4위에 포진한 김세영(22·미래에셋), 리디아 고(뉴질랜드), 스테이시 루이스(미국)도 키가 170cm에 한참 모자란다.

/김민준기자 mjkim@metroseoul.co.kr

윤석민, 5번째 다승왕 출신 '구원왕' 노린다

팀 KIA도 첫 타이틀 도전



KIA의 소방수로 변신한 윤석민(29·**사진**)이 올시즌 다승왕 출신으로는 5번째로 구원왕에 도전한다.

윤석민은 지난달 28일 광주-기아 챔피언스 필드에서 열린 두산 베어스와의 시즌 11차전에서 9회말 등판해 2탈삼진을 곁들여 3피안타 무실점으로 막고 세이브를 추가했다. 시즌 16세이브로 이 부분 단독 1위에 올랐다. 삼성 임창용(39)과 NC 임창민(30)과는 1세이브 차이다.

2011년 선발투수로 4관왕을 따낸 윤석민은 생애 첫 구원왕에 도전하고 있다. 아울러 KIA에게도 첫 구원왕을 배출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 2001년 해태를 인수한 KIA는 지금까지 한 번도 구원왕을 배출한 적이 없다. 전신인 해태로 거슬러 올라가도 1998년 임창용이 한 차례 구원왕에 오른 적이 있을 뿐이다.

윤석민은 원래 소방수 출신이다. 2005년 데뷔 초에 마무리 투수로 나서 2006년에는 19세이브를 기록했다. 이듬해부터 선발로 전향해 2011년에는 다승 포함 투수 4관왕에 올라 정규리그 MVP에 올랐다.

그러나 지난해 메이저리그에 도전해 쓴맛을 본 뒤 다시 한국으로 돌아왔다. KIA는 돌아온 윤석민을 곧바로 선발로 투입하는 것보다 마무리로서 마운드에서의 감을 되찾게 했다. KIA의 수는 적중했다. 자칫 메이저리그에서의 실패로 부진의 늪에 가라앉을 뻔한 윤석민은 팀의 배려에 부응하면서 차츰 감을 되찾고 있다. 올시즌 27경기에 등판해 1승4패 16세이브, 평균자책점 3.67을 기록 중이다. 세 번의 블론세이브가 있지만 전반적으로 안정감을 되찾고 있어 팀이 5할의 승률을 지키는 데 일조하고 있다.

한국 프로야구에서 지금까지 다승왕과 구원왕 타이틀을 차지한 투수는 선동렬, 송진우, 이상훈, 김용수 넷 뿐이다. /하희철기자 bbuheng@

추신수, 시즌 9호 홈런 폭발

개인통산 500타점 달성



추신수(33·텍사스 레인저스·**사진**)가 시즌 9호 홈런을 기록해 메이저리그 개인 통산 500타점을 채웠다.

추신수는 30일(한국시간) 미국 메릴랜드주 볼티모어의 캠든야드에서 열린 볼티모어 오리올스와의 원정경기에 2번타자·우익수로 선발 출전, 5회초 세 번째 타석에서 홈런을 기록했다.

4-0으로 앞선 상황에서 선두타자로 등장한 추신수는 볼티모어 오른손 선발 버드 노리스의 시속 148㎞짜리 직구를 잡아당겨 좌중간 담을 넘어가는 솔로포를 기록했다. 6월 3일 시카고 화이트삭스전 이후 27일 만에 그린 아치다. 추신수는 이 홈런으로 메이저리그 개인 통산 500타점도 채웠다.

1회초 첫 타석에서는 좌전 안타를 치며 2경기 연속 안타 행진을 이어갔다. 추신수는 2루 도루를 감행하다 아웃됐다.

3회에는 노리스의 빠른 공 3개에 모두 배트를 휘둘러 스윙 삼진으로 물러났고, 7회 우전안타를 쳤내며 지난달 14일 미네소타전(4타수 3안타) 이후 16일 만에 3안타 멀티히트를 기록했다.

이날 5타수 3안타 1타점 2득점을 기록한 추신수의 시즌 타율은 0.232로 약간 올라갔다. 텍사스가 8-1 완승을 거뒀다. /하희철기자



7월 3일 개막하는 제28회 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 한국 축구대표팀 선수들이 29일 선수촌에 입촌하고 있다. /광주U대회조직위 제공

한국선수단 2일 입촌… 유도서 첫 金 기대

광주 하계U대회

종합 3위 탈환 목표

제28회 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에 참가하는 우리나라 선수단 본단이 7월1일 오후 2시 선수촌에 입촌한다.

대한체육회는 "유병진 선수단장을 비롯한 선수단 본부 임원 29명이 1일 광주 서구 U대회 선수촌에 입촌해 본격적인 대회 참가 및 경기 지원에 돌입한다"고 30일 밝혔다.

종목별 선수단은 경기 일정에 맞춰 선수촌에 도착할 예정이다. 이미 29일 남자축구와 기계 체조 등 2개 종목 39명이 입촌했고 30일에는 배구, 수구, 여자축구 등 3개 종목 72명이 선수촌에 짐을 풀었다.

공식적인 한국 선수단 입촌식은 7월2일 오후 4시 선수촌 국기광장에서 열린다.

한편 금메달 25개 이상을 획득해 2003년 대구와 2011년 중국 선전 대회에서 기록한 종합 3위를 탈환하겠다는 목표를 세운 한국 선수단은 대회 둘째 날인 4일 첫 금메달을 기대하고 있다. 이날 한국의 금메달 밭인 유도가 시작된다. 8일까지 열리는 유도에는 총 18개의 금메달이 걸려 있고, 첫째 날인 4일에는 4개 금메달의 주인공이 가려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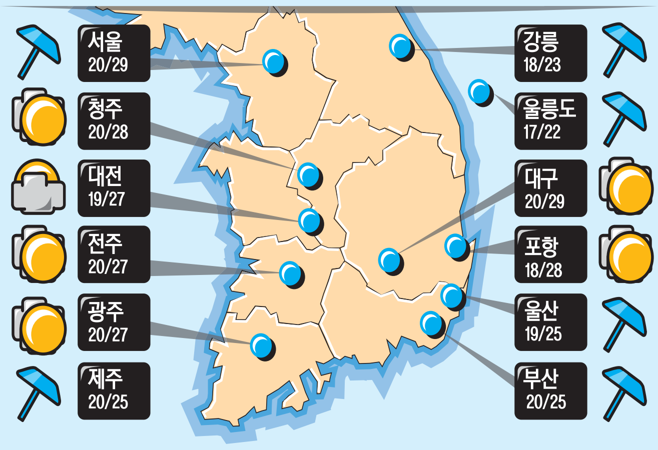
우리나라는 여자 70kg 이상 78kg 이하에 박유진(용인대), 여자 78kg 이상에 김민정(동해시청), 남자 90kg 이상 100kg 이하에 조구함(수원시청), 남자 100kg 이상에 김수완(남양주시청)이 출전한다.

/김민준기자

날씨

7/1 수 일출시각 05:14 일몰시각 19:57

·자료제공 : Kweather 케이웨더(주) www.630.co.kr



자외선지수 / 천식 폐질환가능지수
뇌졸중가능지수 / 피부질환가능지수

자료제공 : 인제대학교 서울백병원 (www.paik.ac.kr)

출근길 두뇌 스트레칭 재미가 듬뿍! 아이큐가 쑥쑥!

SUDOKU

1. 모든 세로줄에는 1~9까지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들어갑니다.
2. 모든 가로줄에는 1~9까지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들어갑니다.
3. 가로, 세로3×3으로 이뤄진 작은 사각형 안에도 1~9의 숫자가 겹치지 않아야 합니다.

				7				
						8	7	
6		7	3			4	1	
	7		2		9		5	1
		6	5		8	7		
1	5		7		3		6	
	1	8			4	2		5
	4	3						
				3				

				5	6		9	
			3					6
					4	1		8
	8			6				7
7			1			2		9
9		3				8		
		5		2	3			
8								
	2	7	4	9				

스도쿠 정답

4	8	1	9	7	6	5	2	3
5	3	9	4	2	1	8	7	6
6	2	7	3	8	5	4	1	9
8	7	4	2	6	9	3	5	1
3	9	6	5	1	8	7	4	2
1	5	2	7	4	3	9	6	8
7	1	8	6	9	4	2	3	5
9	4	3	1	5	2	6	8	7
2	6	5	8	3	7	1	9	4

1	7	8	2	5	6	4	9	3
4	9	2	3	8	1	7	5	6
5	3	6	9	7	4	1	2	8
2	8	1	5	6	9	3	4	7
7	5	4	1	3	8	2	6	9
9	6	3	7	4	2	8	1	5
6	1	5	8	2	3	9	7	4
8	4	9	6	1	7	5	3	2
3	2	7	4	9	5	6	8	1

문제 제공= 보누스

'멘사 스도쿠 프리미어'
(피터 고든·프랭크 롱고 지음)

The Purpose of Merging between Samsung and Cheil Industry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목적은?>

Samsung C&T Corporation has recently contacted the major shareholders such as National Pension, Black Rock and so on, to explain their purpose of merging.

The National Pension and Black Rock stated that Samsung needs to propose a specific plan to increase the shareholder's value after the merging. National Pension and Black Rock holds 10~15% and 2% each of Samsungs share. It is believed that Samsung could not persuade the market.

If Samsung cannot justify their merging reason, National Pension is most likely to take the opposition stand.



30일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열린 제일모직 긴급 기업설명회(IR)에 제일모직, 삼성물산 사장들이 자리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신 삼성물산 상사부문 사장, 윤주화 제일모직 패션부문 사장, 김봉영 제일모직 리조트건설부문 사장. /연합뉴스

삼성물산은 최근 국민연금과 블랙록자산운용 등 대주주와 잇달아 접촉해 제일모직과의 합병 이유와 효과 등에 대해 설명했다.

국민연금공단과 블랙록 등은 최근 삼성 측에 '합병 후 주주가치를 끌어 올릴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는 뜻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연금과 블랙록은 각각 10.15%와 2% 안팎의 삼성물산 지분을 갖고 있다. 핵심 주주들이 이 같은 입장을 전한 것은 합병 발표 후 삼성이 시장을 설득하지 못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삼성이 합병에 대한 확실한 명분을 제시하지 못하면 국민연금공단 등이 삼성쪽 편을 들 수 없을 것으로 보는 시각이 많다.



김상회의 사주속으로

김상회 역학연구원
02) 533-8877
www.saju4000.com

고부갈등 심각… 중간에서 어떻게 대처할지 고민
분가를 하거나 아내가 취업할 수 있도록 도우세요

캥거루엄마 남자 75년 11월 17일 양력 시경

Q 저는 홀어머니를 모시고 4년 전에 결혼한 41세 중년 남자입니다. 중소기업에 총무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면서 생활을 하고 있는데 아들아이가 한명 있습니다. 문제는 제가 결혼을 늦게 한 것도 선을 볼 때마다 어머니의 의견이 지배적이라 이런 저런 이유로 어머니는 반대를 해서 성사가 안 되다가 나중에는 제가 우겨서 지금의 아내와 결혼을 했습니다. 항상 어머니의 치마폭에 있는 저도 그렇지만 아내가 숨이 막혀 합니다. 고부간에 갈등에 대하여 말만 들어오다가 제가 당하니 대책이 없어 고민입니다. 아내를 따르자니 어머니가 걸리고 어머니를 따르자니 아내와 아들이 문제입니다.

A 사주에 효신살(梟神殺:올빼미 효, 귀신 신, 죽을 살)이 있습니다. 어머니가 자식에 대한 애정이 지나칠 정도거나 남다른 애정을 쏟게 됩니다. 이러하기에 쉽게 고부간의 갈등을 의미하며 어머니와 인연이 많은 신살이라고 불립니다. 효신살은 '올빼미살'이라고도 하는데 부인자리 처(妻)가 있어야 할 자리에 어머니가 자리를 잡고 있어 어머니가 밤마다 아들의 방문 앞에서 올빼미처럼 잠도 자지 않고 지켜보고 있는 모습으로 어머니로 인해서 신경써야할 일이 늘 생기게 되며 그 아내가 고통을 당하는 것으로 배우자가 불만을 느끼게 됩니다. 효신살이 있는 남자는 어머니의 결정에 말 한마디 못하는 거의 '마마보이' 수준이 되는데 모친으로 인한 근심, 걱정이 많다고 봅니다. 토기띠생에 정묘(丁卯)생일주(生日柱:생일을 나타냄)가 천간에 갑을(甲乙)목을 년(年)과 시(時)에 두었는데 사주뿌리에 목국(木局:나무로 무리를 이룸)을 이루었으니 인수(印綬:모친)가 너무 강합니다. 모자멸자(母慈滅子)로서 어머니가 너무 仁慈(인자)하여 도리어 그 아들을 망친다는 뜻인데 다시 말하여 사주에 印綬(인수) 즉 어머니의 기운이 너무 많으면 도리어 그 사주는 불길(不吉)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호랑이는 피해도 사주 8자는 피할 수 없다'라는 것이 실감 되는데 대책은 모친과 별거 하도록 하세요. 또 한 가지 방법은 할 수만 있다면 부인이 취업을 해서 사회생활을 하여 낮에는 시어머니와 잠시라도 떨어져 있도록 하세요. 그리고 집안에 올빼미 시계나 새 그림, 인형이 있으면 치워버리세요. 그래도 안 되면 효신살을 희석시키는 처방이 필요할 수도 있는데 미신이라고 치부하기 전에 효신살은 중년이후 부부의 인연이 바뀔 수 있으니 적극적으로 대처하세요.

자신의 사주를 알고 싶은 독자들은 메트로 홈페이지(www.metroseoul.co.kr) 연재 '사주 속으로'를 클릭해 생년월일과 태어난 시, 그리고 상담을 원하는 내용을 적어 올려 주십시오. 추첨을 통해 사주풀이를 해드리겠습니다.

신점[神占] 운세 7월 1일 (음 5월 16일)

힐링운세(www.healingunse.com) 060-800-8877

쥐 **48년생** 뜻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60년생**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72년생** 크게 운이 좋아지거나 나빠지지 않습니다. **84년생** 지금의 상황에 만족하는 지혜가 필요한 때입니다.

소 **49년생** 과욕은 금물입니다. **61년생** 좋은 흐름의 시기를 알고 나아가면 막힘이 없겠습니다. **73년생** 하루종일 기분이 좋은 날 입니다. **85년생** 바라는 것은 매우 잘 풀려 부러울 것이 없습니다.

호랑이 **50년생** 하늘과 땅이 다 같이 훤합니다. **62년생** 귀인이 저절로 찾아옵니다. **74년생** 작은 근심을 버리면 길합니다. **86년생** 뜻하지 않은 재물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토끼 **51년생** 마음이 초조해집니다. **63년생** 너무 간절한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75년생** 맛있는 음식으로 스트레스를 해소하세요. **87년생** 지금의 상황이 조금 좋아졌다고 방심하지 마세요.

용 **52년생** 기다림은 나쁘지 않습니다. **64년생** 학업운이 매우 좋습니다. **76년생** 사업을 하시는 분이라면 매우 좋습니다. **88년생** 남의 말을 많이 하면 그것이 결국 자신에게 돌아옵니다.

뱀 **53년생** 몸이 안 좋으면 바로 병원으로 가세요. **65년생** 쉽게 이루어지기는 어렵겠습니다. **77년생** 사방이 험한 산들이 가로막혀 있습니다. **89년생** 역경을 물리치기는 하나 결실은 만족치 못합니다.

말 **54년생** 새로운 일은 풍요로움을 가져다 줄 것 입니다. **66년생** 거래우자와 충돌의 기미가 보이니 먼저 양보하세요. **78년생** 넓은 마음으로 생각하세요. **90년생** 새로운 것을 고민하고 준비하세요.

양 **55년생** 속마음을 상대에게 시원히 얘기하세요. **67년생** 인생무상이라는 소리가 절로 나올 하루입니다. **79년생** 닭띠를 조심하는 게 좋습니다. **90년생** 섣불리 움직이지 말고 기회를 보세요.

원숭이 **56년생** 몸과 마음이 정갈하지 못하다면 소원을 이룰 수 없습니다. **68년생** 집중하고 노력하면 길합니다. **80년생** 몸가짐을 잘 하는 것이 정신건강에 좋습니다. **92년생** 스트레스를 바로 푸세요.

닭 **57년생** 건강에 유의하세요. **69년생** 어려운일이 생기면 주위 조언자에게 도움을 요청하세요. **81년생** 애정운이 좋습니다. **93년생** 초행길을 갈 때는 항상 주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개 **58년생** 처신에 유의하세요. **70년생** 보람이 있는 지출을 하게 됩니다. **82년생** 대범하게 행동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94년생** 뭐든지 적당한 선에서 타협하도록 하세요.

돼지 **59년생** 자녀에게서 좋은 소식이 들려옵니다. **71년생** 돈거래는 하지 마세요. **83년생** 여 시간을 가지고 해결하는 게 바람직합니다. **95년생** 기대 이상의 수익을 올릴 수 있는 날 입니다.

최지성이 이학수에 비교되는 까닭



김종훈의 재계 바로보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최근 엘리엇 매니지먼트(이하 엘리엇)와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 등 잇단 악재를 만나면서 그를 보좌하는 전문경영인에게도 이목이 쏠리고 있다. 이재용 부회장의 측근으로는 최지성 부회장(미래전략실장) 등이 있다. 그는 이건희 회장에게 이학수 고문이나 김인주 사장, 김순택 전 부회장 같은 참모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문제와 메르스 사태에 따른 이 부회장의 사과 등이 연이어 불거지면서 최 부회장의 보좌 능력에 대한 의구심이 도마위에 오르내리고 있다. 이건희 회장 재임시절 지근거리에서 보좌했던 이학수 삼성물산 고문 시절에는 터지지 않았던 사건들이다.

최근 미국 헤지펀드 엘리엇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안에 반대하는 것도 충분히 예측 가능한 시나리오였음에도 최 부회장이 뻔히 벌어질 일들에 대해 상황을 제대로 들여다보지 못한 것 아니냐는 것이다. 설사 이번 합병안이 통과된다고 하더라도 상당수 국민들은 이 부회장이 승계를 위해 무리한 '삼성물산 가치 높이기 지분평가'를 주도했다는 도덕적인 지탄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엘리엇의 의도대로 국제 재판으로 넘어갈 경우 이 과정에서 입게 될 한국을 대표하는 지도자로서의 이미지 타격 또한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이 같은 문제는 최 부회장이 전통 재무전문가가 아닌데다 삼성전자에서만 잔뼈가 굵어서 전체적인 계열사를 파악하는데 재무 전문가인 이 고문 시절보다 상황 판단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번 합병 비율 산정 등에 있어서도 이 고문 같았으면 재무적으로 파악했을 문제를 사전 예측하지 못했다는 이야기가 재계에서 공공연하게 흘러나오는 이유다. 이 고문은 삼성의 전통적인 재무통으로 통한다. 삼성그룹 회장비서실 부사장, 삼성그룹 회장비서실 재무담당 전무이사, 삼성그룹 회장비서실 재무팀 상무이사, 삼성그룹 회장비서실 재무팀 이사, 제일제당 관리담당 이사 등 숱한 재무 전문가를 역임했다. 삼성그룹의 돌아가는 살림살이를 지근거리에서 모니터링하면서 이건희 회장을 보좌했다.

삼성은 전통적으로 재무 관련 보직을 맡았던 이들이 그룹 전체 경영에서 큰 역할을 담당했다. 계열사마다 최고재무책임자(CFO)가 책임을 맡는 경영지원실이 재경뿐만 아니라 기획, 인사, 법무, 홍보, 대외업무 등 관리 업무를 관할했다. 삼성 계열사 CFO는 임원 평가 기준을 정하는 등 인사에서도 상당한 권한을 갖고 있다는 것이 삼성출신 고위 임원의 전언이다.

재계 한 관계자는 "이건희 회장시절 이학수 고문이 이 부회장의 절대적인 신임을 받은 것은 내외부에서 다 알려진 사실"이라며 "그 이유는 이 고문이 그룹의 재무통으로 계열사들의 지분구조나 재무상황에 대해 앞을 내다보는 통찰력이 남달랐기 때문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이재용 부회장이 이건희 회장과 다른 경영 스타일을 띠는 데는 최 부회장이 상당한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게 재계 안팎의 설명이다.

메르스 사태로 불거진 위기관리 능력에도 한계를 드러냈다. 삼성서울병원을 설립한 삼성생명공익재단 이사장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자신의 생일날인 23일 삼성서울병원 메르스 사태와 관련해 대국민 사과를 한 것도 단적인 면이다.

최근 박영선 의원은 "(이재용 부회장이) 삼성생명공익재단 이사장에 취임한 후에 메르스 사태가 사실상 첫 사건이고, 이 부회장 입장에서는 언론에 처음 노출된 사건"이라며 "이번 사태를 보고 삼성은 위기대응 능력에 있어서 상당히 심각하다는 판단을 하게 됐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삼성이 1966년에 사카린 밀수 사건의 책임을 지고, 삼성그룹 회장직 사퇴, 사카린 밀수 회사인 한국 비료를 국가에 헌납하겠다고 발표한 이병철 선대 회장 이후에 가장 큰 위기를 맞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최 부회장 체제하에서 벌어진 일련의 사태가 이 부회장의 삼성그룹 승계 과정 첫발부터 삐걱거린다는 것이 재계 안팎의 시각이다. 과거 이병철-이건희 회장 세대처럼 우리도 한번 '잘살아보세' 라는 슬로건 아래 국익을 내세우며 국가가 나서 이윤추구 형태의 대기업을 밀어주자는식의 경영이 현재 상황에선 통하지 않는다.

경영권 승계를 위한 이 부회장의 정당성 확보는 이 같은 측면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다. 박근혜 정부가 중소기업과 상생을 위해 창조경제 혁신센터를 전국적으로 세우고 만들어 나가면서 그동안 소홀했던 중소기업 챙기기에 나섰다. 삼성도 주주와의 상생과 혁신을 추구해 현재 다소 손해 보는 것 같더라도 국민이 공감하는 미래를 생각해 볼 시점이다. /산업부장

시험대 오른 삼성의 '리더십'과 '팀워크'



기자 수첩

조 한 진
<산업부 기자>

삼성이 시끄럽다. 최근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 이슈, 삼성서울병원의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진원지 파문까지 바람 잘 날이 없다.

그룹 안팎이 시끄러운 가운데 삼성의 '팀워크'가 의심 받고 있다. 이곳저곳에서 삐걱거리는 모습을 노출하면서다. 삼성의 전략과 전술도 의심받고 있다. 이번 합병 등 그룹의 미래가 걸린 계획조차 치밀하게 따지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일부에서는 '시스템의 삼성'도 옛말이 됐다는 소리가 나오는 상황이다.

그룹 전체 결속력도 예전만 못한 모습이다. 우선 사업개편 하마평에 오르내리는 계열사 직원들은 불안한 모습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면서 업무 외적인 일에 더 촉각을 세우고 있다.

여기에 일부 계열사 직원들은 삼성의 전자 우대정책에 적지 않은 불만을 나타내고 있다. 삼성 계열사의 한 관계자는 "그쪽(삼성전자)은 '갑'이고 우리는 '을'인 상황"이라며 "우리는 삼성전자의 하청업체나 다름없다"며 씁쓸한 표정을 지었다.

이 같이 어수선한 상황에서 삼성에 강력한 리더십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과 같은 구심점이 필요하다는 뜻이다. 현재 이 회장은 1년 넘게 병상을 지키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복귀를 바라지만 상황은 쉽지 않다. 이제 이 회장의 후계자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리더십이 본격적으로 요구되고 상황이다.

삼성으로서는 이번 달이 중요하다. 특히 17일 열리는 합병 주주총회 결과가 그룹 미래에 적지 않은 영향을 줄 전망이다. 삼성의 당초 계획대로 합병안이 통과되면 '3세 체제'의 확실한 밑그림을 그릴 수 있다. 반대 경우에는 또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하는 등 불확실성이 가중되고, 기업 이미지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 회장은 1995년 "기업은 2류, 정부는 3류, 정치는 4류"라는 말을 남겼다. 이 회장이 2류로 평가했던 삼성은 20여년이 지난 현재 글로벌 시장에서 애플, 구글, 인텔 등과 경쟁하고 있다.

최근 '내우외환'을 겪는 삼성이 '초일류' 타이틀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 부회장의 '리더십'과 그룹전체의 '팀워크'가 절실한 상황이다.

협상을 통한 분쟁해결



김재헌 변호사의 BizLaw

미국에서는 민사소송이 대부분 협상을 통해서 합의로 종결이 된다. 이길 가능성과 소송비용 등을 모두 고려해서 소송당사자들이 명분보다는 실리를 택하는 것이다. 미국에서는 형사사건에서도 플리 바기닝(Plea Bargaining)이라고 해서 무죄입증이 쉽지 않다고 판단하면 피고인이 유죄를 인정하고, 덜 무거운 형량을 받는 것을 선택할 수 있다.

그러면 한국인들은 분쟁해결 방법으로서 협상을 어떻게 생각할까? 한국사회는 내가 옳다는 명분이 매우 중요한 사회다. 지는 한이 있어도, 어떤 손실을 감수하더라도 내가 옳다는 것을 증명해 보이겠다는 굳은 결심이 멋있게 보이는 사회다.

그래서 협상을 통한 분쟁해결이 쉽지 않다. 국제거래에서 생긴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협상을 해 보면 '내가 맞고 상대방이 틀렸다'는 전제에서 상대방이 잘못했다는 것을 인정하고 용서를 구할 것을 합의조건으로 내세우는 한국기업들이 가끔 있다. 이런 합의조건을 외국회사가 수용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국가나 정부기관을 상대로 소송을 하면 협상이나 합의는 더더욱 생각하기 어렵다. 담당 공무원들로서는 판결을 통해서 시시비비를 가려야 하지 합의를 통해서는 사건을 종결할 수 없다. 합의로 사건을 종결하는 것은 명분이 없고, 경우에 따라서는 감사원 감사도 받아야 하는 등 불편한 점이 많기 때문이다.

이처럼 한국에는 합의와 타협을 부정적으로 보고 명분을 중시하는 문화가 있는데, 이 문화도 장점이 있을 것이다. 다만 이런 명분을 중시하는 문화 때문에 분쟁이 신속하게 해결되지 못한다. 5년, 10년씩 지속되는 것을 지켜 보면서 한국 전체적으로 분쟁해결에비용을 너무 많이 들인다는 생각을 한다.

그리고 한국기업이 세계로 진출하면서 국제거래가 활성화되는 만큼 국제 분쟁도 계속 는다. 국제거래에서도 한국기업들이 명분을 중시하여 협상과 타협을 통한 분쟁해결의 기회를 놓치지 않을까 생각해한다.

협상이란 내가 원하는 것을 얻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겸손한 태도가 상대방의 마음을 누그러뜨리고 원만한 문제해결을 가능하게 한다는 점을 생각해야 한다. '내가 틀릴 수도 있다'는 인식이 성공적인 협상을 위한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김재헌 변호사(법무법인 천고)

인사

■ 국민건강보험공단
△1급 승진 ▷데이터센터이전추진단 데이터센터이전추진반장 류찬 ▷은평지사장 임근복 ▷춘천지사장 고재덕 ▷강릉지사장 김동기 ▷부산사하지사장 박태근 ▷울산남부지사장 성민경 ▷창원중부지사장 조방식 ▷안동지사장 박득수 ▷칠곡지사장 이해준 ▷전주남부지사장 최병도 ▷여수지사장 노상필 ▷천안지사장 김재경 ▷인천중부지사장 이성규 ▷시흥지사장 정재규 △1급 전보 ▷통합징수실장 권경주 ▷급여관리실장 김홍찬 ▷건강증진실장 오동석 ▷요양급여실장 최광순 ▷중랑지사장 서태진 ▷도봉지사장 오성진 ▷노원지사장 이규호 ▷양천지사장 정승열 ▷금천지사장 조용기 ▷강남동부지사장 김대우 ▷강남서부지사장 김경수 ▷부산북부지사장 강대근 ▷진주산청지사장 이병수 ▷대구북부지사장 지병태 ▷대구달서지사장 이창표 ▷익산지사장 장관형 ▷대전서부지사장 한길호 ▷안양동안지사장 최호규 ▷안산지사장 조성균 △상위직(1급) 전보 ▷부산진구지사장 안명근 ▷경기광주지사장 권영박

■ 강원지방우정청
△4급 전보 ▷강원지방우정청 우정사업국장 이용춘 ▷" 예금영업과장 김문수 ▷원주우체국장 송경호 ▷강릉우체국장 송혁호 ▷동해우체국장 박찬우 ▷삼척우체국장 김기표 △5급 전보 ▷강원지방우정청 우정계획과장 김영식 ▷" 우편영업과장 박현일 ▷" 보험영업과장 석용환 ▷" 감사관 최명철 ▷양양우체국장 김흥수 ▷횡성우체국장 이영준 ▷춘천우체국 영업과장 이흥주 ▷문막우체국장 이정미 ▷원주중앙동우체국장 최현주 ▷강릉우체국 영업과장 최성미 ▷주문진우체국장 양명철 ▷동해우체국 우편물류과장 조진홍 ▷속초우체국 우편물류과장 나근화 ▷삼척우체국 영업과장 김경원

■ 통영시 <4급 승진> ▷안전수산개발국장 황진학 <5급 승진> ▷세무과장 직무대리 구태헌 ▷정보통계과장 " 김외영 ▷공원녹지과장 " 박춘근 ▷건강증진과장 " 이은주 ▷용남면장 " 박종민 ▷봉평동장 " 추영석 <5급 전보> ▷공보감사담당관 곽동실 ▷문화예술과장 추연민 ▷건축디자인과장 이용운 ▷상하수도과장 황선욱 ▷보건위생과장 이필숙 ▷광도면장 유기남 ▷북신동장 김석원 ▷무전동장 이재옥

대명건설
Daemyung

잠실의 프리미엄 맨앞에서 누려라

그 위상이 드디어 드러났다!

롯데월드타워, 서울아산병원, 삼성SDS본사이전, 국민연금공단, 한국루터회관 등
5만여 풍부한 임대수요와 잠실관광특구의 빛나는 비전프리미엄까지 품은
잠실의 중심으로 대명벨리온이 찾아갑니다



특급교통 몽촌토성역, 잠실역, 신방이역(9호선 연장 예정) 트리플 역세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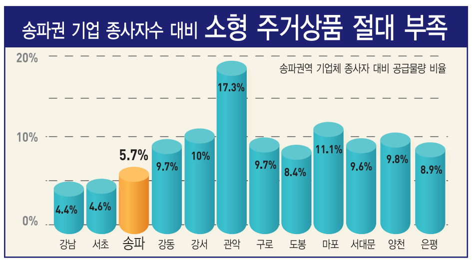
특급수요 서울아산병원, 롯데월드몰·타워(예정), 문정법조타운 등 풍부한 배후수요, 잠실관광특구내 위치

주거만족 롯데타운, 석촌호수, 올림픽공원 등 선호도 높은 주거환경

혁신공간 스마트한 빌트인 주거공간으로 입주자 만족 극대화

No.1 리조트그룹 대명그룹이 만든 랜드마크 오피스텔

송파권 기업 종사자수 대비 소형 주거상품 절대 부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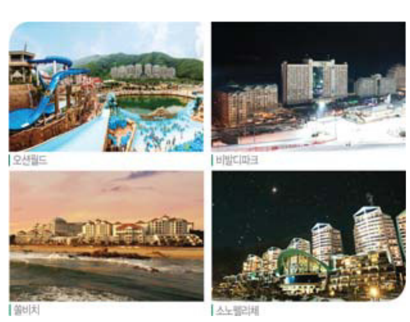
층 · 호수 청약접수 안내

- 신청금 : 100만원
- 예금주 : (주)싸이트리더스
- 은행 : KB국민은행
- 입금계좌 : 884237-04-003874

※ 미 계약시 신청금 전액 환불됩니다.

분양문의

02) 413-4100



※ 상기 이미지는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개발 및 계획에 대한 사항은 각 개발주체 및 관계기관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시행 (주)싸이트리더스 Site Leaders Co.,Ltd. 시공 대명건설 Daemyung 자금관리 부동산 투자의 대표 한국토지신탁 분양관리신탁 태원피앤에이